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가톨릭 직장인



VOLUME 306 | JANUARY 2023



1795년 出生
1839年 9月 22日 殉教

丁夏祥
바로
聖人
2012.11.17경 도헌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2023년 1월호 / 통권 306호

발행일 2023년 1월 1일

발행인 정순택

편집장 노우식

편집 및 디자인 직장사목팀 편집부

인쇄 상경커뮤니케이션즈

발행처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04537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3 교구청 별관 5층

전화 02-727-2078 팩스 02-753-3792 홈페이지 www.catholicworkers.or.kr

Copyright 2023©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가톨릭 직장인>에 실린 글, 그림 및 사진 등은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Contents

VOLUME 306 | JANUARY 2023

렌즈로 보는 세상	4
함께 읽는 성경	6 요한의 셋째 서간
교회의 가르침	10 하느님 사랑의 선물 7성사 14 가톨릭 직장인을 위한 쉬운 사회교리 18 순교자를 통해 살펴보는 한국교회사 22 교황 회칙 「찬미받으소서」 해설 26 '성인' 이름을 알면 영성이 보인다
신앙과 삶	30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라
듣다 읽다 보다	32 고전 음악을 듣다 38 함께 읽는 세계 문학 44 신앙인의 영화 보기와 세상 48 신앙의 땅, 이스라엘을 거닐다 54 정석의 이 도시 60 그림으로 만나는 성인이야기
직장사목팀 소식	66 직장사목팀 행사 및 소식



THE COVER

성 정하상 바오로

그린이: 정도운 엘리야(<http://artist-jdw.com>)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묵상하며 더 깊은 내적 여정의 길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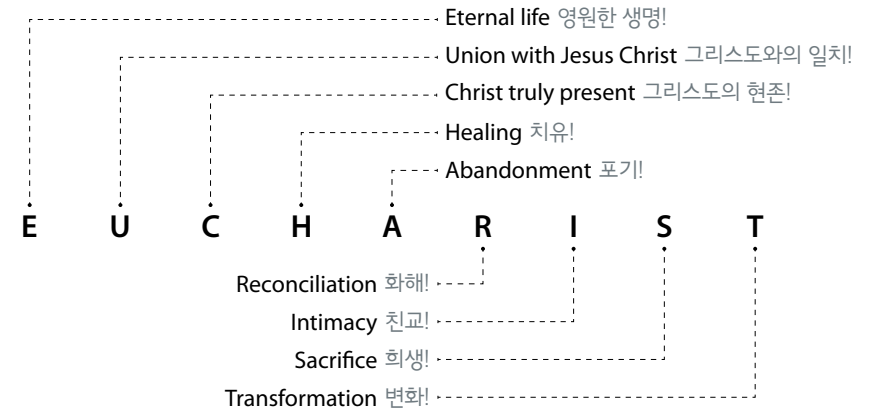
/
윤정민 마틸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 주시리라. ...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 ...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민수 6,24-27)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애독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서울대교구 교구장님이신 정순택 대주교님께서는 2023년도 사목 교서에서 사목 방향을 “선교 정신으로 재무장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교회”로 정하시고, ‘새롭게 출발하는 교회’로 살아가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로 우리 신앙생활의 근원인 ‘미사성제/성체성사’를 통해 영적 힘을 길어내자고 하셨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미사성제/성체성사’에 관해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원천이며 정점”(「교회헌장」 11항)이라고 표현하였고, 성 요한 바오로 2세께서도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라는 말로 성체성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만큼 ‘미사성제/성체성사’는 교회 안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하느님 은총의 보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체성사를 영어로 하면 Eucharist입니다. 언젠가 인터넷에서 이 단어 안에 신앙생활의 모든 요소가 들어 있다는 것을 담은 글을 본 적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미사성제/성체성사’를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그리스도의 현존을, 치유, 포기, 화해, 친교, 희생, 변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미사성제/성체성사’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한 삶(E·U·C·H·A·R·I·S·T)을 살아가는 직장 교우회가 됩시다.

노우식 신학교리학과

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본부장

요한의 셋째 서간

허영엽 마티아 신부_ 서울대학교구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장



요한의 셋째 서간은 요한의 다른 서간과는 다르게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요한의 서간들 중 형식상 가장 편지다운 편지라 할 수 있습니다. 수신인은 '가이오스'라는 원로(元老)입니다. 사적인 내용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교회에 해당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이오스는 누구인가?

가이오스라는 이름은 신약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 요한의 셋째 서간을 제외하면 모두 사도 바오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사도 19,29; 20,4; 로마 16,23; 1코린 1,14). 가이오스는 사도 바오로의 선교 활동에 매우 협조적인 인물로 등장합니다.

가이오스가 코린토에서 언급되는 것을 살펴보면 사도 바오로는 2차 선교여행(50~52년경) 때 그리스에 4개 교회 즉 필리피·테살로니카·베로이아·코린토 교회를 세웁니다. 아테네에서도 선교했지만, 교회를 세

우진 못했습니다(사도 17,17). 바오로가 가장 오래 머문 곳은 코린토인데, 스스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렸고, 로마에서 온 아퀼라 부부와 가깝게 친교를 나누었습니다(사도 18,3). 유대인은 종교 이단자로 바오로를 고발하지만(사도 18,13), 로마 총독 갈리오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갈리오 외에도 코린토에서 바오로를 도왔던 사람은 아퀼라 부부와 코린토 첫 신자 스테파나스 가족(1코린 16,15), 집회장소를 제공한 가이오스(로마 16,23)와 코린토 소식을 전해주던 클로에 집안(1코린 1,11) 등입니다. 이렇듯 2차 바오로의 선교여행은 코린토 교회에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가이오스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원로를 맡고 있는 인물이며, 서간에서 '낯선 이들'을 위하여 성실히 봉사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며, 무보수로 일하고 있는 그들이 여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3요한 1,5-8). '낯선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입니다. 가이오스는 지역 교회에서 선교

사들을 맞이하고 후원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지역 교회에 가이오스 같이 신심 깊고 믿을 만한 협조자가 있다는 것은 교회에 큰 유익이 됩니다.

서간에 등장하는 디오텔레페스는 누구인가?

그의 신상에 관해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원로의 고민거리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편지는 교회 내에 분쟁을 일으킨 디오텔레페스를 경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 내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로 권력욕과 지배욕이 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 정통적인 교회의 권위조차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자신의 권력을 누리고 다른 이들을 지배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력욕이 강한 사람은 다른 이를 존중하지 않고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조직 내 파벌이 조성되고 자율성에 장애가 됩니다. 교회를 사유화하고 주님의 교회를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하면서 교회의 독소가 됩니다. 공동체의 전체 선을 위한 봉사 정신보다는 다른 구성원들을 지배하고 통제하면서 자신의 영광을 원하는 욕심으로 정치 행위에 몰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인물 때문에 교회가 고통받고 분열됩니다. 상대방을 형제로 사랑하며 동료로 존경하려 하기보다 적처럼 미워하며 중상 모략하는 이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데메트리오스는 누구인가?

요한의 세 번째 편지에서 보면 데메트리오스는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고 있으며, 진리 자체도 그를 인정해줍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인정은 더 신빙성이 있지만, 가장 좋은 인정은 진리 자체이신 하느님이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그가 권력욕의 화신이었던 디오텔레페스와 대조적으로 선을 행하여 교회에서 칭찬받은 인물이었다는 점입니다. 데메트리오스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실이란 맑고 깨끗한 마음과 순수한 태도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대하거나 정성과 힘을 다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성실입니다. 무엇보다 성실한 마음이 하느님을 움직이고, 성실한 생활 태도가 이웃을 감동시키고, 성실한 정신이 물질세계를 올바르게 다루게 합니다. 데메트리오스는 권력을 탐닉했던 디오텔레페스와 대조적으로 스스로 낮아져 봉사하는 사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봉사란 모든 이의 종이 되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신앙 행위입니다. 모든 이와 하느님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던 데메트리오스. 교회와 신자들에 대한 매력은 감소되고 있는 오늘날에 데메트리오스 같은 인물들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공동체인 교회는 많은 결점과 부족함을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 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크고 작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

요한의 셋째 서간을 읽고 다음 문제를 풀어보세요

- ① 요한의 셋째 서간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 ② 요한의 셋째 서간의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 ③ 사랑하는 이여, 그대의 영혼이 ()하듯이 그대가 모든 면에서 ()하고 또 건강하기를 빕니다.
- ④ 요한은 가이오스에게 언제가 매우 기뻐했다고 합니까?
- ⑤ 사랑하는 이여, 그대는 형제들을 위하여, 특히 ()들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든 다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 ⑥ 1장 5절의 ‘낮선 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 ⑦ 우두머리 노릇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⑧ 그는 ()로 우리를 헐뜯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려는 이들까지 방해하며 교회에서 () .
- ⑨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진리 자체로부터도 좋은 평판을 받는 이는 누구입니까?
- ⑩ 우리도 그를 위하여 ()합니다. 그대는 우리의 ()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래의 말씀들을 한주에 하나씩 외워봅시다

1주간 형제 몇 사람이 와서 진리에 대한 그대의 충실성을, 곧 그대가 진리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증언할 때에 나는 매우 기뻐합니다(1,3)

2주간 사랑하는 이여, 그대는 형제들을 위하여, 특히 낮선 이들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든 다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1,5).

3주간 그래서 내가 가면 그가 하는 행실을 지적하겠습니다. 그는 나쁜 말로 우리를 헐뜯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려는 이들까지 방해하며 교회에서 쫓아냅니다(1,10)

4주간 선을 행하는 이는 하느님께 속한 사람이고, 악을 행하는 이는 하느님을 빕지 못한 사람입니다(1,11).



하느님 사랑의 선물 7성사

견진성사, 견고함과 성숙함의 성사



왕태연 요셉 신부_의정부교구 토평동 성당

세례성사가 하느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성사라고 한다면, 견진성사는 “신앙 안에서 성숙해지는” 성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견진성사를 통해서 성령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신자들은 신앙인으로서 자신의 사명과 책임감을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진성사의 의미에 대해 가톨릭교회 교리서 1285항은 “견진성사로 신자들은 더욱 완전히 교회에 결합되며 성령의 특별한 힘을 받아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서 말과 행동으로 신앙을 전파하고 옹호하여야 할 더 무거운 의무를 집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세례성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견진성사에서 주어지는 그리스도교 신앙인으로서의 사명과 성령의 은총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18~20)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에게 약속하신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였고, 자신들이 받은 성령의 은총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분명 사도들이 맡겨진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성

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자기 능력의 실현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에 대한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사도는 코린토 공동체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세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또한 우리에게 인장을 찍으시고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습니다.”(2코린 1,21~22)

견진성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은총은 이처럼 우리가 하느님의 소유로서 오로지 하느님의 뜻에 의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은총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깨달아, 자신의 구원이 하느님께 달려있음을 알게 되고,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구원의 보증을 드러내보이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전달하고자 견진성사 예식에서 집전자인 주교님께서는 견진성사를 청하는 이들의 이마에 **축성성유**를 발라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성령 특은의 날인을 받으십시오.”(Accipe signaculum Domini Spiritus Sancti)

이 거룩한 기름, 즉 성유는 부활을 앞둔 성주간 목요일 성유축성 미사에서 주교님이 축성하신 ‘크리스마 성유’입니다.

성유를 바르는 것은 견진성사 예식에서 가장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합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기름부음’은 성사 안에서 “**영적 인호(印號)**”로

서, 성령의 이끄심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원의식을 깨닫는 은총을 누리게 되었음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하느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분’(사도10,38)이심을 기억한다면, 견진성사에서의 도유 즉, ‘기름부음’은 그리스도인의 신원의식을 넘어서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게 해 줍니다.

이 기름부음에 이어 주교님께서서는 성령의 은총을 전달하는 의미에서 ‘안수’해주시는 안수(按手)는 어떤 물건이나 사람의 머리 위에 손을 들고 행하는 전례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가톨릭교회의 전례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동작 중 하나이며, 모든 전례 동작 중에서도 특별하고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복음서의 여러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손을 얹는 행위를 통해서 병을 낫게도 하시고, 축복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따라서 견진성사에 있어서 주교님의 안수는 사도들의 후계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고, 그 안수를 통해 성령의 은총을 전달하는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그렇게 견진성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총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 신앙인으로서의 사명과 책임감을 깊이 깨달게 된 이들이 교회의 ‘성인(成人)’으로서 합당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곱 가지 은사를 “성령칠은”이라고 하는데, 성령의 은사를 일곱이라는 숫자로 국한한 것은 ‘일곱’이라는 숫자가 성경 안에서 지니는 ‘충만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인간에게 주어지는 하느님의 충만한 은총을 드러내기 위해 일곱 가지로 정리된 것입니다.

‘슬기’는 모든 일을 하느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올바르게 판단하고 실천하도록 도와주며, ‘통달’은 성경의 내용이나 교회의 교리들을 깊이 통찰하여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의견’은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인간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의 함에 있어서 성령의 뜻을 구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지식’은 창조주이신 하

느님께서 이 세상에 심으신 질서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용기’는 유혹과 어려움을 극복하여 굳은 마음으로 하느님을 따르는 여정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효경’은 스스로 하느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며, 끝으로 ‘경외심’은 자신의 죄와 잘못이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임을 깨닫도록 하여 죄를 피하고, 죄로부터 멀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물론, 이러한 설명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의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 단 7개 뿐이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세례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이들은 또한 하느님의 자녀로서 그에 걸맞게 성장해야 하고, 성숙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견진성사를 받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견진성사를 받지 않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세례성사를 받을 때에도 몇 달을 교리 공부를 하느라 고생했는데, 견진성사를 받기 위해 그 수고로움을 다시 한 번 반복하는 것이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서 견진성사를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성사를 받은 신자들은 성체성사와 견진성사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 성사들에 참여해야 할 필요성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세례성사를 받은 신자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신앙을 돌보며 견진성사의 필요성에 대해 숙고하면서 견진성사에 대한 의지를 키워야 합니다. 그러한 숙고를 통하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스스로 성령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며, 신앙인으로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찾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므로 성령을 따라갑시다.”(갈라 5,25) ☩

「가톨릭 직장인」 가톨릭 직장인을 위한 쉬운 사회교리 ③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들(인권)과 그 공통 특성

박동호 안드레아 신부

지난 호에서 ‘인간 존엄’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들(인권, the Fundamental Human Rights)’을 정원의 ‘땅’과 ‘그 정원의 온갖 생물’ 사이의 관계에 비유했는데, 그 권리들은 **인간 존엄의 발현(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원(庭園)의 땅이 비옥(肥沃)하면, 다양한 식물과 곤충이 어울려 살면서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거꾸로 땅이 척박하면 식물도 곤충도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땅이 비옥하더라도 사람들이 정성껏 가꾸지 않으면 금세 그 아름다운 조화의 광경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인간의 존엄을 힘껏 존중하면 할수록 그만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들은 더 충분히 실현됩니다. 거꾸로 사람들이 그 존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수록 그만큼 그 기본적인 권리들은 더 쉽게 훼손됩니다.

앞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들’을 그냥 **‘인권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통상 우리는 ‘인권’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단수형’으로 사용할 때, 실제 생활에서 어떤 인권이 다른 어떤 인권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경제생활 영역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노동의 권리(노동권, 勞動權)’와 사용자의 ‘소유의 권리(소유권, 所有權)’가 있는데, 우리 사회는 이 두 권리가 너무나 자주 대립 · 충돌하여 그 해결책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한자(漢字) 그대로 갈등(葛藤 - 칩과 등나무가 서로 얽혀 있는 것)의 관계처럼 보인다는 뜻입니다. 현실에서 그 인권들은 서로 갈등 관계에 놓여 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인권’이라 하지 않고 ‘인권들’이라 하겠습니다.

옥토의 아름다운 정원에 사는 온갖 생물과 곤충들은 대립하여 서로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무리 옥토라도 그 정원은 금세 황폐해질 것입니다. 인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의 예를 든, 노동권과 소유권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실현해야 할 권리들입니다. 이

는 ‘노동’과 ‘자본’ 사이의 관계에 관한 이해를 반영합니다. 노동과 자본을 양립(兩立) 불가한 것으로 보아 둘 가운데 하나는 살고 다른 하나는 죽어야 할 그런 필연적 투쟁의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아니면 노동과 자본은 상호 보완, 또는 상호 건설적 긴장의 관계여서 둘이 함께 살아야 할 공생 또는 발전의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물론 가톨릭 사회교리는 두 번째 이해를 가르칩니다. 그 근거는 아주 단순합니다. 어떤 형태의 노동이든 또 어떤 형태의 자본이든 모두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고 오로지 ‘인간의 존엄’을 드러내는 수단들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 모든 권리는 그것이 무엇이든 ‘인간 존엄’의 발현(發現)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인권들의 공통 특성에 관한 것이 그 하나이고, 인권들의 목록에 관한 것이 다른 하나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인권들의 ‘공통 특성’에 관해 『간추린 사회교리』 153, 154항의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인권들은 보편적(universal)입니다. 보편(普遍)이란 ‘모든 것에 두루 미치거나 통함. 또는 그런 것’이란 뜻입니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여기서 ‘모든 것’을 ‘모든 사람’으로 바꾸면 됩니다. 이를 두고 교회는 인권들이 시간(시대), 장소, 또는 주체에 있어 예외를 두지 않고 모든 사람한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편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시간’에 있어 예외를 두지 않는다는 것은 ‘어제’든 ‘오늘’이든 ‘내일’이든 그 권리들은 언제나 모두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장소’에 있어 예외를 두지 않는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든 저 자리에서든 어디든 그 권리들이 변함없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체에 있어 예외를 두지 않는다는 것은 신분이냐 국적이냐 여성이냐 남성이냐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누구에게나 다 그 권리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인권들은 침해할 수 없습니다(invulnerable). 침해(侵害)란 ‘침범하여 해를 끼침’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권들은 침범하여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권리들은 인격과 인간 존엄에 내재(內在)하고, 모든 사람이 모든 장소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권리들을 존중해야 할 의무를 확실히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권리들을 선포하는 것은 헛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인격과 인간의 존엄’은, 앞의 비유에서, 정원의 옥토라 할 수 있는데, 그 존엄은 철학적 관점으로는 본래부터 있는 것이며, 신학의 관점에서는 하느님께서 인격에 부여하신 것입니다. 인권들은 그 인격과 존엄에 기반한 것이므로, 인간의 그 무엇도, 세상의 그 무엇도 침범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권리들의 존중 의무 노력’은 비록 땅이 비옥하더라도 사람이 정성껏 가꾸어야 할 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인권들은 양도할(될) 수 없습니다(inalienable). 양도(讓渡)란 ‘권리나 재산, 법률에서의 지위 따위를 남에게 넘겨줌’이란 뜻입니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서, 그 사람이 누구든, 이 권리들을 박탈하는 그것을 정당화할 수 없는데, 그것은 그들의 본성을 해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권들은 사람이 만든 것도 세상이 부여한 것도 아니므로, 원래부터 사람이나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그 때문에 사람이 그 마음대로 인권들을 양도할 수도 없으며, 누구도 그 권리들을 박탈해서는 안 됩니다. 양도하든 박탈하든 그것은 인간의 본성(인격과 존엄)에 해(害)를 가하는 것이 됩니다.

넷째, 인권들은 개별적으로뿐만 아니라 전체적(全體的)으로 수호되어야 합니다. 이는 ‘전체성’의 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예를 든 ‘노동의 권리’와 ‘소유의 권리’를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노동의 권리와 소유의 권리가 ‘보편적이고 침해할 수 없으며 양도할(될) 수 없는’ 인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두 권리가 충돌하는 장면을 자주 목격하고 또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는 한 권리만 주장한다는 것은 다른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이런 모습은 두 권리의 토대(인간의 존엄 또는 인격의 동등성 또는 절대성)를 그 시야에서 놓쳤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존엄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노동의 권리’와 ‘소유의 권리’가 함께 발현할 길이 나타납니다. 이는 마치 옥토의 정원을 잘 가꾼다면, 온갖 꽃들과 나비와 벌들이 함께 평온하게 잘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다섯째, 인권들의 ‘전체성’은 자연스럽게 인권들의 ‘불가분성’을 낳습니다.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이지만, 앞의 예를 다시 들면, 노동자의 권리와 사용자의 권리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부정적으로 설명하면, 노동자의 권리, 소비자의 권리, 경영자(사용자)의 권리, 투자자의 권리 따위를 서로 독립된 권리라 간주하고 저마다의 권리를 주장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는 우리가 너무나 자주 경험하는 사례들입니다. 비록 정원의 생물(식물)들은 저마다 특성과 모습이 다르더라도, 모두 그 정원의 옥토에 뿌리를 내려야만 함께 잘 자라고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정으론 유난히 특정 식물만 자라게 된다면 다른 식물들이 제대로 자랄 수도 꽃을 피울 수도 없게 됩니다.

이 보편성, 침해 불가성, 양도 불가성, 전체성, 불가분성을 인권들의 (공통) 특성이라고 합니다. 다음 호에서는 인권들의 목록을, 말하자면 사람들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인식(認識)하고 인정(認定)하며 존중(尊重)해야 할 권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순교자를 통해 살펴보는 한국교회사

총회장 최창현(崔昌顯, 요한, 1759~1801) 복자

조한건 프란치스코 신부,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신유박해(1801)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천주교 4대 박해 중 첫 번째로, 1801년 음력 1월 10일 대왕대비 정순왕후 김씨의 금교령으로 시작하여, 12월 22일(음)에 반포한 척사윤음(토역반교문)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박해의 여파가 이어지고, 서학에 대한 금교령은 개항기까지 풀리지 않았습니다.

탕평책을 통해 조선의 중흥을 꿈꾸던 정조(正祖)의 죽음과 함께 노론벽파와 남인 시파의 정치적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순조가 11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자 대왕대비 김씨는 집권하자마자 천주교 신자들을 일망타진하려고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우선 중인(中人) 최필공 토마스가 체포(1800. 12.17 음)되었고, 사촌 동생 최필제 베드로가 체포되었습니다. 최창현 요한은 배교자 김여삼(金汝三)의 밀고로 1월 9일(음) 신유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초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1월 10일(음)에 바로 대왕대비 김씨의 공식 박해령이 있었습니다.

“선왕(先王, 정조를 가리킴)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정학(正學=조선유학=성리학)이 밝으면 사학(邪學=유학이 아닌 가르침, 천주교)은 저절로 그친다고 하셨는데, 지금 듣건데 사학이 여전히 서울에서 번두리에 이르기까지 날이 갈수록 더욱 성한다 하니 어찌 두렵지 않겠는가? 지금 이른바 사학은 아비도 없고 임금도 없으며 인륜을 파괴하고 교화를 배반하여 오랑캐와 금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 하는데, ... 각 고을 수령들은 ... 오가작통(五家作統)의 법을 실시하여 ... 극형으로 없애버려 종자를 퍼지 못하게 하라. ...’”(이만책의 벽위편, 신유년 사교를 다스림) 조선왕조의 천주교 박해의 명분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무부무군(無父無君)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주교 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아버지와 임금을 만드신 천주(天主)를 대군대부(大君大父)라고 불렀습니다.

최창현 요한은 역관 집안 출신으로, 한국교회의 창설 무렵 이벽을 통해 천주교를 받아들였고, 천주교 서적들을 번역하고 베끼어 보급하

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른바 ‘가성직 제도’ 시기에, 그들의 활동을 돕기 위해 힘썼고, 성직자 영입 운동에 동참하였습니다. 최인길 마티아가 주문모 신부를 모셨을 때 함께 힘을 보탰고, 최인길이 순교하자 주문모 신부를 피신시키고 측근에서 돕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최인길의 동생 최인철의 증언입니다. “(주) 신부는 저의 형 최인길과 최창현이 계획을 세워서 데리고 들어왔는데, ... 저의 형이 죽은 뒤에 최창현이 그분을 탄 곳으로 옮겼다 했습니다. ... 저의 형이 최창현과 지황의 무리와 함께 주가(周漢)를 맞이해 들일 때, ... 그 후 최창현과 강완숙의 집에서 여러 차례 만나 사서(邪書)를 강습했습니다.”(사학징의 1권, 최인철의 문초 내에)

주문모 신부를 모시다가 포도청에서 순교한 최인길의 조카뻘이 되는 최창현은 주 신부로부터 총회장에 임명되었습니다. 그것은 최요한이 최인길에 이어 신부를 모셨을 뿐 아니라, 그의 덕행이 매우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항사영 백서』에는 그의 덕행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몸가짐이 평화스럽고 언행이 공정하여 20년을 하루같이 지냈습니다. 그는 표양이 순수하고 말수가 적으면서도 정의로워서, 누구든지 의혹이 생기거나 곤란을 당하여 몹시 근심스럽고 답답할 때에는 그의 얼굴만 한 번 보아도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일이 그다지 큰 일이 아니며 어려운 일이 아님을 스스로 깨닫게 되고, 또 그의 말은 몇 마디만 들어도 가슴이 시원해졌습니다. ... 그 말이 마음속 깊이 들어가므로 듣는 사람의 신심에 매우 유익했습니다. 그의 순명과 겸손은 천성에서 우러나온 것이었고, 남보다 특별히 뛰어난 점도 없었으며 흡잡을 행동도 없었습니다. 교우들 중에서 덕망이 제일 높아 그를 사랑하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천주교를 믿고 나서 순교할 때까지 한결같이 살아갔던 총회장 최창현은 주문모 신부를 가장 측근에 모신 평신도 중 한 분이었습니다. 최창현의 집에서 만들어진 비단회장은 제대

를 꾸미기 위해 사용된 것입니다. 최창현은 첫 번째 추국(2월 11일)에서 “천주께 첨례하는 날에 이 휘장을 설치하고 천주상을 건 다 음 무릎을 꿇고 서적을 외우면서 천주의 은혜를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첨례 혹은 미사의 모습은 정인혁의 진술에 나타납니다.

“제가 작년 봄에 최창현을 따라 김이우(바르나바)의 집에 갔더니, 그 집 아랫방에 휘장을 설치하고 상에는 촛불을 밝히고 요상(妖像, 성상)을 걸어 놓았습니다. 신부 주가가 상 앞에 서서 사서를 입으로 외웠으므로 저는 최창현과 김이우 형제 등과 함께 첨례했는데, 창 밖에서는 여인 4-5명도 앉아서 외우고 익혔습니다. 다음날 새벽 저는 돌아왔다가 한 달이 지난 뒤 낮에 김이우의 집에 갔더니 주가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학징의 권1, 정인혁의 문초 내에)

정인혁은 최창현의 안내에 따라 미사가 집전되는 김이우의 집에 갔을 것입니다. 당시 미사전례는 집에서 거행되었는데, 제대를 위한 탁자가 놓여 있고 그 위로 휘장을 설치하며, 탁자 위에 촛불을 밝히고 성상을 놓았습니다. 미사는 라틴어로 봉헌되었을 것이고, 여성들은 집 밖 창가에서 기도를 하며 함께 참례했습니다.

그러나 20년을 한결같이 신앙인으로 살아갔던 최창현도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추국 첫 신문 마지막에 천주교에 대한 부정의 말을 던

졌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사학에 미혹되어 지금에 이르렀으니 후회막급입니다. 이른바 천주, 야소를 결단코 마땅히 원수로 보고 이적금수(夷狄禽獸)의 도로 볼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낱아준 부모를 공양함으로써 평범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2월 11일 추국 중에서)

가톨릭 교회의 성인(聖人)은 그의 삶이 완벽하다는 이유만으로 추대되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삶이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불완전한 덕이 완덕을 향해 나아가갈 때, 그는 하느님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최창현은 이를 후 추국에서 이전의 배교를 취소하고 다시 신앙으로 돌아옵니다. 곧 2월 13일 추국에서 최창현을 다시 신문합니다. 정약용이 최창현을 가리켜 ‘괴수의 우두머리’라고 했으니, 교주와 교우를 아는 대로 고하라는 추국을 받습니다. 최창현은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 포도청에 들어가 바른대로 진술하여 (천주)교를 배반하고, 부모를 봉양하고 처자를 보호하면서 평범한 백성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이제 정약용이 저를 괴수로 지목하였지만 저는 지목할 사람이 없으니, 죽는 것 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이제 천주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전날 교를 배반한 것을 통회하고 죽고자 할 따름입니다. 지목할 사람이 없습니다.”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통회이고, 회심입니다.

최창현의 진술에는 한국의 초기교회에서 사

용한 독특한 용법이 나타납니다. 신부(神父)와 대부(代父)에 대한 물음에서 “약종의 신부는 이승훈이며, 대부는 권일신입니다. 신부는 세례를 주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대부는 교리를 가르쳐 주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이승훈을 신부로 삼고 정약전을 대부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용법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아마도 이승훈이 북경에서 세례를 받았을 때, 세례를 준 분들이 모두 서양 선교사로 사제(司祭)였기 때문에 신부(神父)로 불리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를 주는 사람이 신부(神父)가 되고, 이승훈의 대부(代父)는 아마 교리를 가르쳐주신 교리교사 혹은 수사님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리를 가르쳐주는 이를 가리켜 대부(代父)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틀린 용법이고, 신부는 ‘서품을 받은 이’, 대부는 ‘영적인 아버지’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최창현은 중인 출신의 역관으로, 당시에 가장 덕망 있는 평신도로 ‘총회장’에 임명되었습니

다. 그의 가장 큰 업적이라면 주문모 신부를 측근에서 모신 한 사람으로서, 교회서적을 번역하고 베끼는 일을 맡으며, 특히 「성경직해 광익」이라는 ‘주일과 축일의 복음해설서’를 한글로 번역한 신자라는 점입니다. 교우들 사이에서 그의 호(號)는 관천(冠泉)이라고 불리었는데, 그의 집이 있는 곳이 입정동(笠井洞) 곧 ‘갯을 만드는 집에 우물이 있어 갯방우물골’이라는 지명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갯(笠)과 우물(井)이 모관(冠)과 샘물(泉)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복자 ‘관천’은 이제 순교의 월계관을 쓰고, 천주께서 주시는 샘물을 맛보고 있을 것입니다.

순교복자 최인길, 최필공, 최필제 모두 최창현과 친척뻘이 되고, 최창흠 베드로 성인은 최창현 요한의 이복동생이 됩니다. 최창현 요한은 ‘자신이 천주교의 우두머리’임을 인정하고 사형을 선고받고, 서소문 밖 네거리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하여 신유(1801) 추국의 첫 순교자 그룹에 들어갔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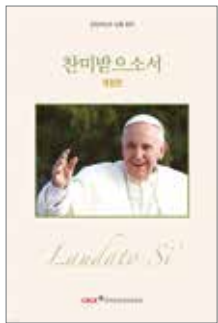
묵상

최창현 복자처럼 오늘날 교회 봉사자들이 말없이 덕행을 드러내고 있는지요? 순명과 겸손, 한결같은 몸가짐은 바로 오늘날 회장이 가져야 할 모습이 아닐까요?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한 생태적 회심: 교황 회칙 「찬미받으소서」 해설

통합 생태론 (1)

송영민 아우구스티노 신부, 대구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찬미받으소서 | 프란치스코 교황 저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 2015년 9월 5일

새해를 시작하며 이 꼭지는 이제 「찬미받으소서」 회칙의 후반부를 다루게 됩니다. 작년까지 살펴본 회칙의 전반부가 생태 위기의 현실과 원인에 대한 분석, 그리고 신앙적인 관점에서의 성찰을 다룬다면, 회칙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장들은 오늘날 생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실천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먼저 회칙 제4장이 제안하는 통합 생태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

몇 년 전에 사회정의에 관심이 많던 나이지리아 출신 신부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멸종 위기의 동식물을 보호하는 일과 굶주리는 사람들을 위

해 산림을 개발하는 일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오늘 먹어야 할 빵이 먼저입니다.”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 생태계를 보호하는 일이 사람을 돌보는 일과 분리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되새겨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환경 위기와 사회 위기는 다른 문제처럼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생태 문제에 대해 단편적으로 접근하는 경향 속에서, 환경 위기와 사회 위기, 그리고 인간의 위기가 하나의 복합적인 문제임을 보지 못하고 별도로 이야기되곤 했지요. 때로는 사회 정의 문제와 환경 문제를 대립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를 걱정하는 환경 운동가들과 빈곤 문제의 심각성을 주장하는 사회 운동가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단편적인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찬미받으소서」 회칙은 ‘통합 생태론’(integral ecology)을 제시합니다. ‘통합’이라는 말이 의미하듯, 통합 생태론은 한쪽 생태의 방식이 아닌 각 생태의 연결고리를 찾고 자연과 인간 생태 모두를 포함하는 총체적인 접근을 추구합니다. “모든 것이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오늘날의 문제들이 세계적 위기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는 시각을 요구하기 때문에”(137항) 통합적인 성찰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겠지요. 어쩌면 이 세상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는 생태론에 ‘통합’이라는 말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인간중심주의로 인해 자연은 “우리 자신과 분리된 것이나 단순한 우리 삶의 틀로만”(139항) 여겨지고, 인간과 자연은 ‘통합’이라는 말이 필요할 정도로 관계 회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통합 생태론을 제안함으로써 교회의 생태적 담론이 파편화된 형태를 넘어 포괄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라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합 생태론의 배경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통합 생태론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지만, 생태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은 가톨릭 교회 안에서 그 전부터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통합 생태론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교황님은 “세상을 그 일부 요소들만 따로 떼어 분석할 수 없다”(6항)고 보십니다. “자연이라는 책은 하나이고 나눌 수 없는 것으로 환경, 생명, 성, 가정, 사회관계를 포함”(6항)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점에서 교황님은 우리가 무책임한 행동으로 자연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면 사회 환경 역시 상처를 입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십니다.

이러한 자연 생태와 인간 생태의 연관성은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평화 생태론’으로 발전됩니다. 2010년 세계 평화의 날 담화문 「평화를 이루려면 피조물을 보호하십시오」에서 교황님은 환경 난민들의 문제를 통해 생태계 위기가 다른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지적하시며, 피조물과의 평화와 인간 간의 평화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자연의 평화 없이 인간의 평화 없고, 인간의 평화 없이 자연의 평화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 인간, 사회의 생태적 통합을 ‘평화’로 인식하는 이러한 성찰은 오늘날의 평화 담론을 사회 정의와 생태 정의에 통합시킨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합적 문제 의식

통합 생태론은 현재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얼마나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날 생태 위기는 우리가 단지 탄소 배출만 줄이고, 환경 오염적 요소만 제거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탐욕과 사회적 빈부격차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무분별한 개발이 중지될 수 없고, 결국 생태계 파괴란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하는 문제 의식이 필수적입니다.

이제 만 3년이 된 코로나19 사태 앞에서 저는 통합적 문제 의식의 중요성을 새삼스레 깨닫습니다. 지구 온난화는 단순히 기온이 오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생태계 파괴는 몇몇 생물종의 멸종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이런 문제들이 결국 신종 감염병을 가져오고,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

협하고, 실업과 경제난과 사회 혼란 등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통합적으로 배웁니다. 인간, 동물, 생태계의 건강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원헬스(One Health)’가 단순히 이론이 아님을 체험한 것이지요. 그동안 이루어진 변화의 규모를 볼 때, 문제의 각 부분에 대한 별도의 답을 찾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황님의 이 말씀에 다시 밀줄을 긋게 됩니다. “자연계 자체의 상호 작용과 더불어 자연계와 사회 체계의 상호 작용을 고려하며 포괄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139항). 네 그렇습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참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컨대, 통합 생태론은 오늘날 지구 위기가 하나의 관점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자연생태뿐만 아니라 사회생태와 인간생태도 함께 살펴보려는 시도입니다. 통합 생태론의 목적은 인간과 인간의 평화와 공존이 아닌 지구뿐만 아니라 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인간과 모든 만물이 함께 지속가능한 공존을 모색하는 데 있습니다. 즉 정의와 평화 그리고 생태계 보전이 서로 연결된 문제라는 것을 상기시키며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 보다 종합적으로 접근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런 점에서 통합 생태론은 단순히 ‘녹색’ 이야기만이 아니라, ‘빨주노초파남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성인’ 이름을 알면 영성이 보인다

성 라이문도

St. Raymond (축일: 1월 7일)

박희전 루케시오 신부. 작은형제회

독일의 시성(詩聖)이라고 불리우는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는 이런 격언을 남겼습니다. “인간을 벌할 수도 사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으면 안된다.” 이는 법(law)과 관련한 격언으로, 법이 처벌만을 위한 것도, 사면만을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인간존중의 뜻하고 열린 시선으로 항상 접근해야 한다는 진리를 망각하지 않게 해 주는 격언입니다. 그러니 처벌과 혐오가 법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는 점이 지요. 그런 맥락의 연장선에서 교회 내에 존재하는 교회법도 같은 신학과 영성을 지닙니다. 교회법은 교회 구성원들의 처벌만을 위한 것도, 예방적인 차원이나 교정적인 차원만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법은 목적률(Teleological Principle), 곧 본디 창조되고 제정된 본질에 충실하도록 계도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법은 곧 사목적이며, 사목적인 것은 교회법과 상충되지 않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요즘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못내 안타깝고 대단히 아쉬운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법 학자의 수호성인이신 스페인 페냐포르트(Penafort)의 성 라이문도 사제는 다시금 주목해야 하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교회법의 기초를 세우신 교회법 대학자 성인 사제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디 도미니코회(설교자회)의 세 번째 총장으로 재임하셨고, 수많은 저서를 지으셨음에도 항상 겸손한 모습을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이 라이문도 성인의 영향을 받은 이들이 우리가 잘 아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 성 보나



벤투라, 성 대 알베르토 등이십니다. 라이문도 성인께서 교회법의 대가로서 기초를 닦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이름 속에 담겨진 영성과 삶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의 혼란을 다시금 분별할 절대적 필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분의 이름 라이문도는 영어로는 ‘Raymond(레이몬드)’입니다. 고대 게르만어로는 ‘Raginmund(라긴문트)’라고 했으면, 이탈리아어로는 ‘Raimondo(라이문도)’라고 부릅니다.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로는 ‘Raimundo(라이문도), Ramon(라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 어원인 고대 게르만어를 분해해서 분석하면 이렇습니다. ‘Ragin(라긴 또는 라진)’은 ‘advice, decision’이란 뜻이고, ‘Mund(문드 또는 문트)’는 ‘protector’이

란 뜻입니다. 그러니 레이몬드, 라이문도는 한 마디로 ‘The Protector of Advice and Decision’입니다. 곧,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합당한 조언을 줄 수 있는 진리의 수호자”라는 의미가 라이문도라는 이름에 내포된 어원적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라이문도 성인은 47세에 도미니코회(설교자회)에 입회하셔서 1238년에 총장이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도미니코회 수도회 회헌을 재정비하셨는데, 이 회헌이 1914년까지 도미니코회의 근간이 되었을 정도로 아주 탁월하였던 것입니다. 교황청 내사원에서 활동하셨고, 고해성사의 여러 지침을 주는 “상황윤리 전서(Summa Causum)”를 집필하셨습니다. 그래서 젊은 수사였던 성 토마스 아퀴나스를 설득하여 “이단자를 거슬러(Summa contra Gentiles)”를 집필토록 한 “진리의 수호자”가 바로 라이문도 성인 이셨습니다. 거의 100세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위한 생애를 사셨던 라이문도 성인은 1275년 1월 6일에 선종하셨습니다. 1601년 교황 클레멘스 8세에 의해 시성 되셨고, 1969년 전례력 개혁을 하면서 축일을 1월 7일로 옮겨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항시 주님께서는 교회가 여러 가지 혼란과 분열과 가치 상대화로 인해 몰락할 처지였을 때, 합당한 지적·영적 수호자를 파견하여 주셨습니다. 라이문도 성인처럼 진리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때는 그때만이 아니라, 늘 그렇지만, 지금 우리 한국가톨릭교회도 더욱 그렇습니다. 라이문도 성인처럼 이 시대에 백색 순교자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



Leonardo da Vinci, The Last Supper, 1495-96, mural painting, Convent of Santa Maria delle Grazie, Milan, Italy. [GiorgioMorara-stock.adobe.com]

양형 영성체(兩形領聖體, communion under both species)

성체를 빵과 포도주 두 형상으로 영하는 것.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 때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하시고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나의 피다”(마태 26,27-28) 하신대로 초대 교회에는 양형 영성체를 실천하였다. 양형 영성체는 신자들의 증가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실천되었다. 그 하나는 로마에서 생긴 관습으로 예수님의 방식 그대로 두 형상을 따로 영하되 축성용 성작과는 달리 영성체용 성작을 사용하여 이를 기울여 마시거나 튜브를 사용하여 마시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빵을 포도주에 적시어 영하는 방식인데 손으로 빵을 적시어 주거나 적시어진 빵을 술갈로 떠주었다. 이의 기원은 불확실하나 9세기 이래 동방전례에서 일반화되었다.

후자의 양형 영성체 방식이 11세기 서방교회에서 성행하기 시작하자 이는 성혈을 받아 ‘마시는’ 것이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소리가 높았다(파스칼 II).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 양형 영성체는 구원에 필요 불가결하다는 양형론(Ultraquism)의 이단이 생기게 되었다. 로마가 빵의 형상만으로 성체를 영하는 관습의 발생을 묵인하여 넘긴 것도 궁극적으로는 이 이단에 대한 반작용 때문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어느 한 형상 안에 전체로서 계신다는 교리(Concomitantia)가 나타난 것도 이때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하여 로마는 빵만의 영성체를 규정하였고 콘스탄츠 공의회(1415년)와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이를 확인하였다.

오늘날의 경향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성체성사의 현의를 충분히 나타내도록 양형 영성체를 이상으로 삼고 있다. 교회법에서 영성체는 빵의 형상만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전례법에 따라 양형으로 하거나 필요한 경우 포도주의 형상만으로 할 수 있게 하였다(925조).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전례헌장에는 교황청이 규정할 경우 주교는 양형 영성체를 허가할 수 있게 하였다(55항), 예부성서의 교령(1965. 3. 7)에 의하면 양형 영성체의 방식은 네 가지, 즉 잔을 기울여 마시거나 튜브를 사용하거나 술갈을 사용하거나 빵을 포도주에 적시는 방법 중 하나를 택할 수 있게 하였고, 주교가 양형 영성체를 허가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해 두었다. [출처: 가톨릭대사전]

한국 가톨릭교회의 경우, 사제가 평신도에게 성체와 성혈을 함께 영해주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 세례미사, 견진미사, 혼인미사, 서품미사, 수도자 서원미사 때 해당자들
- (2) 선교사 파견미사 때, 피정 때, 각종 회함미사 때 해당자들
- (3) 혼인의 경축미사(은혼축, 금혼축) 그리고 수도서원의 경축미사(은경축, 금경축) 때 해당자들
- (4) 병자의 집에서 미사를 집전할 때 참례한 신자들 [출처: 미사경본 총지침 242항 제6조]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라

가톨릭 직장인 모임교재팀

1. 주님을 초대한다.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2. 삶을 바라본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제96차 전교 주일을 맞아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경계를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것을 당부했다. ... (중략) ... 교황은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인 교회는 그리스도를 증언해 온 세상에 복음을 알려야 하는 사명의 외에는 다른 어떤 사명도 없다. 복음화하는 일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라며 “사명은 각자가 아니라 함께, 개인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이루는 친교 안에서 수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그들을 세상으로 파견하셨다”며 “복음화에서 그리스도인 삶의 모범과 그리스도인들의 용기와 솔직함과 담대함을 다시 한 번 지녀야 한다”고 권고했다. ... (중략) ... 그러면서 “기도는 선교의 삶에서 근간이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교황은 “온전히 선교하는 교회를, 그리고 그리스도 공동체들이 하는 선교 활동의 새 시대를 늘 꿈꾼다”며 “참으로 교회안의 우리가 모두, 세례의 힘으로 이미 예언자, 증인, 주님의 선교사가 되었던 본연의 우리가 모두 성령에 힘입어 땅 끝에 이르기까지 예언자, 증인, 주님의 선교사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2022년 제96차 전교주일 담화문]



Question

신앙이 없는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전교한 경험들을 나누어 봅시다.

3. 하느님께 귀를 기울인다.

1) 성경 본문을 읽고 함께 나눈다.

로마서 10장 15절과 마태오 복음 28장 19절 부터 20절까지 읽어주십시오.

2) 성서본문 중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외친 후 묵상한다.

3)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눈다.

전교를 하면서 하느님께서 함께하심을 느낀 적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4. 교회의 문헌을 읽는다.

만민에게(Ad Gentes) 파견된 교회, ‘구원의 보편 성사’가 되도록 하느님에게서 파견된 교회는 그 고유한 보편성의 내적 요구에서 또 그 창립자의 명령에 순종하여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려고 노력한다. 이 교회는 사도들 위에 세워졌으며, 바로 그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여 여러 교회를 낳은 것이다.”, “하느님의 말씀이 퍼져 나가 찬양을 받고”(2테살 3,1) 또 하느님의 나라가 세상 어디에나 선포되고 건설되도록 이 일을 영구히 계속하여 나가는 것이 사도들의 후계자들의 직무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선교 교령 1항]

‘세례 받은 사람은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교회를 통하여 하느님께 받은 신앙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려고 힘쓰고” 하느님 백성의 사도적, 선교적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270항]

“그리스도의 가정은 사람들의 친교이며, 성령 안에서 성부와 성자께서 이루시는 친교의 표지이며 형상이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출산과 자녀 교육은 성부께서 하시는 창조 행위의 반영이다. 가정은 그리스도의 기도와 희생에 동참할 것을 요청받고 있다. 일상적 기도와 하느님 말씀을 읽는 것은 가정 안에서 사랑을 강화시켜준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복음의 전파자이며 선교사이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2205항]

5. 실천계획을 세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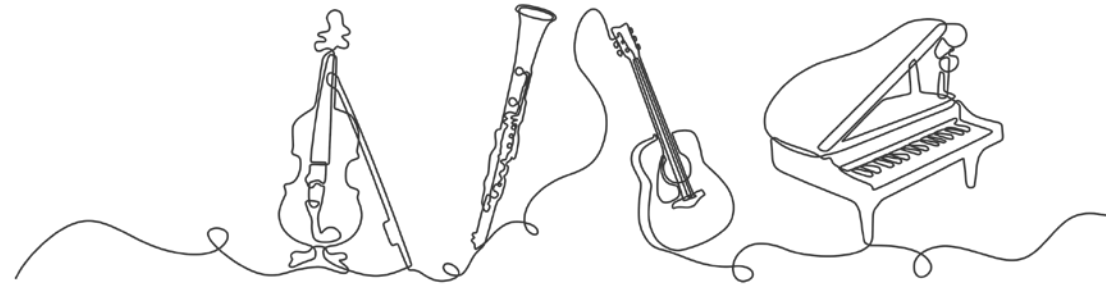
6. 기도나 성가로 모임을 마친다.

고전 음악을 듣다

브루크너: 교향곡 7번 아다지오 악장, 리스트의 검은 곤돌라와 바그너의 죽음 (2)

조병선 바오로 청주대 법학과 교수

안톤 브루크너(Josef Anton Bruckner)는 1896년 타계하면서 자신의 시신을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성 플로리안 수도원(Stift Sankt Florian) 성당의 예배당 오르간 밑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이에 따라 실제로 그의 시신은 그 오르간 밑에 묻혀있다. 우리가 1071년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에 의해 이미 건립된 고풍스런 수도원과 그 주위의 숲을 산책하면서 이어폰으로 그의 음악을 들어본다면, 브루크너를 좋아하는 이들(흔히 ‘브루크너리안’이라 불린다)에게는 자연스레 그의 음악이 자연과 교회 이 두 가지로 대변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브루크너리안을 떠나 대중에게도 가장 널리 알려진 브루크너의 작품으로 **교향곡 7번**을 들 수 있다. 특히, **2악장 ‘아다지오’**는 2004년 방영된 KBS 대하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의 극적인 장면, 특히 해상에 배들이 몰려가는 비장한 장면의 배경음악으로 흘러나와 시청자들의 큰 반향을 얻었다. 전혀 클래식을 접해본 경험이 없는 이들조차도 KBS에 그 곡명을 알려달라고 문의가 쇄도하여 방송가를 놀라게 하였다. 2년여의 시간 끝에, 1883년 9월 5일 완성된 브루크너의 교향곡 7번은 ‘신의 존재’에 대한 브루크너의 ‘숙고’가 돋보이는 곡이다. 2년이라는 시간은 늘 장고를 거듭하는 브루크너의 교향곡 작곡 스타일로 볼 때 오히려 빠른 편이다. 브루크너는 아주 작은 음을 4도(도-파)와 5도(솔-레) 또는 완전8도를 계속 쌓아올리는데, 보통 다른 작곡가들은 주로 3도나 6도(다만 베토벤은 주로 완전5도)는 꼭 찬 느낌을 주는 반면에, 4도나 5도는 ‘공허’한 여백미를 주고, 이러한 여백이 쌓아올리쳐서 마치 최면술사와 같이 ‘인식을 놓아버리는 경지’에 이르게 만든다. 브루크너의 교향곡들은 그 뛰어난 작품성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전에 청중



의 이해를 받지 못했고, 교향곡 4번도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었다. 1884년 초연된 교향곡 7번에 이르러 비로소 성공을 거두면서 그동안 외면당했던 다른 교향곡들도 대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때 작곡가의 나이가 60세였다. 브루크너는 교향곡 7번을 작곡할 당시, 그가 존경하던 바그너의 죽음을 예감하고 영감에 휩싸여 2악장을 작곡했다. 의사도 아닌데 한 사람의 죽음을 예견했다고 해서 브루크너가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니고, 당시 69세의 바그너는 심장병의 악화로 이미 더 이상의 치료를 포기하고, 1882년 겨울에 가족과 함께 따뜻한 남쪽 베네치아로 떠나 마지막 회복을 기대하던 터였다. 유명인 바그너이니 이 소식은 널리 퍼졌을 것이다.

바그너의 친구이자 장인인 리스트도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베네치아의 바그너를 방문하였다. 결국 바그너는 1883년 2월 13일 심장병으로 사망하였다. 베네치아에서 바그너가 마지막 거주하던 ‘팔라초 벤드라민(Palazzo Vendramin)’은 지금도 베네치아의 수상버스 ‘바포레토(Vaporetto)’를 타고 베네치아의 가장 큰 운하 ‘카날 그란데’(교통 중심대로와 같음)를 따라가서 정류장 ‘산 마르쿠올로’에 내리면 3층의 고풍스런 건물이 보인다. 지금도 ‘카날 그란데’에는 바그너의 사망을 언급한 기념명패가 운하 벽에 붙어있다. 바그너 일가는 곤돌라 2대를 예약하여 전용으로 사용하였는데, 리스트가 베네치아 기차역에 도착했을 때, 그중 한 대의 곤돌라가 마중을 나갔고, 바그너가 사망하였을 때도 그 곤돌라가 바그너의 관과 가족을 태우고 베네치아역으로 운송하였다. 바그너의 관은 베네치아역의 기차 한 칸이 특별히 마련되어



Bruckner: Symphony No. 7 in E Major
Hamburg Philharmonic, Simone Young

Release Date: 30th Mar 2015
Catalogue No: OC688
Label: Oehms
Series: Simone Young Bruckner Symphonies
Length: 66 minutes

바이로이트까지 운송되었다. 리스트는 바그너가 죽기 한 달 전, 1883년 1월 13일 곤돌라로 베네치아역에서 부다페스트로 귀가하였다. 이때 리스트는 바그너의 죽음을 예견하고 ‘검은 곤돌라의 노가 바닷물을 저을 때 마치 내 머리 속에서도 마지막 노를 저어 가는 듯 하였다’고 하며 장례곡을 작곡하였다. 리스트의 ‘검은 곤돌라(Gondola Lugubre)’는 수상도시 베네치아에서 장례행렬을 대신하는 곤돌라의 슬픈 뱃노래(바카롤레)가 되었다. 리스트는 1882년 겨울 바그너의 장례곡으로 f단조의 피아노 독주곡을 작곡했지만(La Lugubre No.1 S.200a), 스스로도 깊은 감명을 받아 죽은 자 모두를 위하여 곡을 다소 확장시키고, 첼로 또는 바이올린의 현악소나타 버전(La Lugubre No.1 S.200b)으로 만들었고, 이 확장된 제2번도 1883년 1월에 피아노 버전으로 만들었다. 결국 ‘검은 곤돌라’ 제1곡은 바그너의 장례식 음악이며, 확장된 제2곡은 죽은 자 모두를 위한 장례식 음악이다. 양곡 모두 베네치아의 운하에 고통스럽게 부딪히는 검은 파도 소리가 묘사되고, 검은 옷을 입은 곤돌라 뱃사공의 흐느낌이 들어있다.

이렇듯 1882년 겨울, 이미 바그너의 임박한 죽음이 널리 예견될 즈음, 브루크너는 원래 1881년초까지는 ‘테 데움(Te Deum) C장조’의 작곡에 매달리고 있었다. 그러다 1881년 ‘테 데움’의 작곡을 잠시 중단하였고, 그해 9월 23일부터 다시 교향곡 7번을 작곡하기 시작하였다. 1882년 바그너가 심장병



The Liszt Project
Bartók/ Berg/ Messiaen/ Pavel/ Scriabin/ Stroppa/ Wagner
Pierre-Laurent Aimard

Release Date: 19th Sep 2011
Catalogue No: 4779439
Label: DG
Length: 2 hours 25 minutes

으로 드러누웠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죽음을 예견하던 브루크너는, 바그너가 그의 음악극 ‘니벨룽의 반지’에서 사용했던 ‘바그너 튜바’의 어두운 음색을 2악장의 주제선율로 떠올렸다. 브루크너답지 않게 비교적 빠르게 작곡하여, 바그너가 세상을 떠나던 1883년에 2악장을 완성했다. 이렇게 시기적으로 교향곡 7번 2악장과 ‘테 데움’이 겹치기도 하고 연속되고 있기 때문에 교향곡 7번 2악장과 ‘테 데움’은 밀접하게 이어져 있다. 그리고 ‘바그너 튜바’라는 낯선 악기는 그 모양이 작은 튜바처럼 생겼으나 소리는 호른과 튜바의 중간 정도 된다. 보통 튜바에 비하여 부드럽고 풍부한 튜바 소리를 들려준다. 브루크너는 교향곡 7번에 처음으로 바그너 튜바를 편성한 이후 교향곡 8번과 9번에 이 악기를 사용했으나 다른 관현악곡에 바그너 튜바가 나오는 일은 없다.

이처럼 브루크너의 교향곡 7번 2악장 C#단조는 존경하던 바그너를 잃은 슬픔을 계기로 가톨릭 신앙으로 죽음과 인생을 숙고하고 있는데, 느린 아다지오(Adagio)로 ‘매우 의식(儀式)적이고 매우 느리게(Sehr feierlich und sehr langsam)’라는 지시어를 붙이고 있다. 일설에 따르면, 브루크너는 바그너가 서거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에 제2악장의 클라이막스의 심벌즈를 쓰고 있었다고 한다. ‘바그너 튜바’와 ‘비올라’로 장엄하게 연주되는 2악장의 제1주제는 복잡 미묘한 느낌을 자아내는데, 이는 이 선율이 상당히 넓은 음역에 걸쳐있을 뿐 아니라 단조와 장조가 끊임없이 교차하고 있는 까닭이



Anton Bruckner-Eugen Jochum
Te Deum and other works
 Maria Stader, Sieglinde Wagner, Ernst Haefliger, Peter Lagger
 Chor der Deutschen Oper Berlin, Chor des Bayerischen Rundfunks
 Berliner Philharmoniker

Release Date: 17th May 1999
 Catalogue No: 4577432
 Label: DG
 Series: Originals
 Length: 78 minutes

다. 복잡한 감정의 음영을 암시하는 이 선율은 신비한 황홀경마저 느끼게 한다. 특히 이 주제의 후반부는 브루크너의 ‘테 데움’ 중 제5곡 중 “하느님 당신 안에서 저희가 바라오니 더 이상 방황함이 없으리이다(In Te, Domine, Speravi)”의 선율에서 온 것으로 종교적인 분위기를 강하게 풍긴다. 2악장 후반에 이르면 한차례의 클라이맥스에 다다르게 되는데, 이때 브루크너 교향곡에서는 드물게 나오는 ‘심벌즈’와 ‘트라이앵글’과 같은 타악기가 등장해 듣는 이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감당할 수 없는 괴로운 현실 앞에서 주님을 의지하라는 시편 31장. 시편 31장을 기록한 시인은 다윗이다. 이 시편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은 6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 나이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을 숨을 거두시면서 하신 말씀이다. 루카복음에는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루카 23,46)로 되어 있다. 이 구절이 너무 유명해 모든 영어 성경은 “Into your hands I commit my spirit”으로 번역하고 있다. 성 스테파노도 똑같은 고백을 하며 숨을 거두었다. 또한 루터도 이 고백을 하며 숨을 거두었으며 종교개혁자 후스도 화형대에서 순교를 하며 마지막 고백으로 이 구절을 낭송하였다. 브루크너가 교향곡에 사용한 테데움 제5곡에 자주 등장하는 31장 2절은 ‘우리가 죽을 때에’, 다시 말해서, 비록 하느님 안에 있더라도 죽기 전 ‘이 세상’에서는 그 불공평한 세상 때문에 방황했지만, 이제 죽어서 가는 정의로운 하느님의 세상(‘저 세상’)에서는 더 이상 그럴 일도 없을지니... 왜냐하면 이제 (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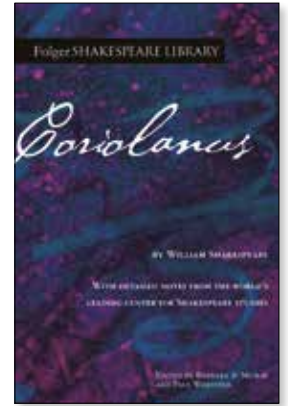
었으므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때 필요한 내 의지를 떠나서 앞으로는 하느님이 세상을 인도하실 것이므로..하는 느낌을 갖게된다. 라틴어 원어를 보자. “In te, Domine, speravi; non confundar in aeternum” 보통 가장 많이 쓰는 번역은 “주님, 제가 당신께 피신하니 저로 하여금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님의 의로움으로 저를 건지소서”이지만, 필자가 ‘테 데움’의 음악감을 위하여 음악용으로 그 감정과 그 배경을 넣어서 번역한다면, “당신 안에서는, 오! 하느님, 제가 바라옵건대 (불공평한 현 세상에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도록 해주소서; 당신의 정의로움(공평한 세상) 안으로만 인도하소서”가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교향곡 7번 2악장 아다지오는 브루크너가 전 생애를 통해서 추구했던 사념의 종착역일지도 모르겠다. 그것은 말 그대로 끝으로서의 종착점이면서 역설적으로 ‘자기 소멸’의 극점일 수도 있다.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존재할 필요조차도 없는 ‘니르바나(해탈)’의 경지가 아닐까.

브루크너의 아다지오 악장은 모든 것을 탄생시키고 또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대자연과 그 근원이신 하느님에 대한 끝없는 경외와 동경을 압축하고 있다. 리스트가 ‘검은 곤돌라’에서 죽음이라는 인간의 고통과 적막한 고독(첼로 또는 바이올린의 선율)까지도 ‘영원성’(검은 곤돌라의 노젓는 물결 소리의 피아노)에 흡수시켜 버리는 구조와도 유사하다. 평생을 독신으로 음악에 생애를 바친 브루크너는 숲속의 성 플로리안 수도원이 마음의 고향이었고, 피아노 리사이틀의 비루투오조 리스트는 세기의 사랑 카롤리네 비트겐슈타인 공작부인과의 이별과 자녀의 죽음을 거쳐 성직에 귀의하여 신부님이 되었다. 세월은 흘러도, 필자에게는 두 천재 음악가의 향기가 두 음악의 향기와 늘 겹쳐지는데, 문득 고개를 들어 오늘따라 우중충한 구름 사이로 살짝 쏟아지는 햇빛과 마주친다. 햇빛 넘어 떠오르는 얼굴들, ‘아다지오 악장’과 ‘검은 곤돌라’와 ‘영원’ 속으로 이어진다. ❷

함께 읽는 세계 문학

“여자들이여, 무릎을 꿇읍시다!": 셰익스피어의 <코리올라누스>와 분노의 정치학

왕은철 미카엘 전북대학교 영문과 석좌교수



Coriolanus (Folger Shakespeare Library)
William Shakespeare | Simon & Schuster | 2020.07.07

사랑과 미움은 대상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 고자 하는 역동적인 감정이라는 점에서 서로를 닮았다. 반대되면서도 서로를 끊임없이 필요로 하고 서로가 없으면 존재하지 못하는 감정들인 셈이다. 이 세상에 미움은 없고 사랑과 좋아하는 감정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그것은 꿈이다.

프로이트의 용어를 빌려 말하면 사랑의 감정은 생성의 리비도요 미움의 감정은 파괴의 리비도다. 양쪽이 다 대상을 향해 투사되는 심리적 에너지라는 점에서는 같다. 다만 하나가 부추김의 대상이라면 다른 하나는 다독임의 대상이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것은 인간 안에 잠재된 사랑의 감정을 북돋고 장려해 그것과 반대되는 미움과 증오의 감정을 다독이고 다스리기 위해서다. 모두가 종교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세상은 사랑과 평화로 가득한 공간이겠지만 아쉽게도 사랑보다는 미움과 분노와 반목이 더 많아 보인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툼과 전쟁은 미움과 분노와 반목에

서 비롯된 것들이다. 그러한 감정들이 부분적으로 정당한 측면이 있더라도 그것들은 극단을 향해 달리다가 결국에는 스스로를 벼랑으로 내몬다. 스스로를 위해서 분노를 가두고 다스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스스로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누군가가 그의 분노를 억제하고 그의 머리를 화해 쪽으로, 화해가 아니라면 적어도 이해와 연민 쪽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미움과 분노가 극단적일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셰익스피어의 <코리올라누스>는 누구도 통제하지 못하는 복수의 감정에 휘말린 인간의 이야기다. 복수의 감정이 과잉되어 비극으로 치달는 이야기. 이 비극은 고대 로마의 역사가 플루타르크의 <가이우스 마르키우스 코리올라누스의 삶>이나 티투스 리비우스의 <로마사>에 나오는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다. 같은 이야기가 역사서들에 반복하여 나오는 것을 보면 그런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로마만이 아니라 세계의 다른 곳에

서도 복수심에 스스로의 삶을 저당 잡힌 예는 얼마든지 있을지 모른다. 비극까지는 아니어도 미움이나 원한 때문에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배반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코리올라누스는 로마 장군이다. 본래 이름은 가이우스 마르키우스지만 그가 코리올라누스라 불리는 것은 로마의 적인 볼키스족의 도시 코리올리를 정복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기 때문이다. 코리올라누스는 ‘코리올리의 정복자’라는 의미다. 그렇게 명예로운 칭호를 받을 정도로 그의 활약상은 대단했다. 가망이 없던 전투를 로마군에 유리하도록 바꿔놓은 사람도 그였다. 그가 없었다면 로마군은 코리올리에서 적군에게 패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는 그 전투에서만 영웅이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다른 전투에서도 영웅이었다. 그래서 적들은 그가 나타나면 사기를 잃고 도망치기 바빴다. 그러니 로마인들은 그를 국민적 영웅으로 칭송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어머니도 그를 무척 자랑스러워했다. 일찍 세상을 떠난 그의 아버지도 살아 있었다면 아들의 영웅적 활약

상을 기뻐했을 것이다.

그는 군인으로서의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몸에 난 수십 군데의 상처는 그것을 증언했다. 귀족들이 그를 집정관으로 임명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래서였다. 문제는 그가 오만하다는 데 있었다. 그는 평민들을 무시하고 경멸했다. 그는 그들이 전쟁도 싫어하고 평화도 싫어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겁을 먹고 뒤로 숨고, 평화로울 때는 거만해진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런 생각을 속에 담아두지 않고 대놓고 표현했다. 특히 평민들이 곡식 문제로 반란을 일으키자 그는 그들이 불평불만만 일삼고 사리사욕만 챙기려 한다고 격렬하게 비난했다. 다섯 명을 호민관으로 선출하여 자신들을 대표할 수 있게 된 평민들이 그를 좋아할 리 없었다. 호민관들은 그를 용납하지 않았다. 그들은 귀족들이 그를 집정관으로 만들려 하자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가 조금만 자제하여 평민들의 비위를 맞춰 더라면 집정관이 될 수 있었다. 그들의 요구대로 “겸손한 옷차림”을 하고 대중 앞에 서서 전

쟁에서 입은 상처를 보여주며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겸손하게 요청했다더라면 그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그도 처음에는 그들의 비위를 맞추려 했다. 귀족들과 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충고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호민관들은 의도적으로 그를 자극했고, 결국 그는 이성을 잃고 그들을 향해 모욕적인 말들을 쏟아냈다. 그들은 이때다 싶어 평민들을 부추겨 시위를 하게 했고, 결국 압박을 받은 원로원은 그를 추방하기로 결정했다. 어찌 보면 평민과 귀족 모두가 그를 쫓아내는 데 공모한 셈이었다. 그는 어머니와 아내, 아들을 로마에 두고 혼자서 망명길에 올라야 했다. 돌아오면 사형에 처해진다는 조건이 따라붙었다. 코리올라누스는 이를 갈며 복수를 맹세했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수하고 싶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자신을 그렇게 내쫓는데 국가가 무슨 소용인가 싶었다. 그는 적군의 장수 아우피디우스를 찾아갔다. 아우피디우스는 전투에 임할 때마다 코리올라누스한테 번번이 패했던 장수였다. 그런 사람을 찾아간 것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로마에 복수하겠다는 생각이 없었더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행동이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지만, 그에게는 복수하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는 당당했다. 그는 아우피디우스에게 도와줄 테니 자신이 “은혜를 모르는 로마”에 복수를 할 수 있

게 해달라고 청했다. “오해하지 마시오, 내 목숨을 구해달라고 온 게 아니요. 죽음이 두려웠다면 당신을 피했을 거요. 나는 나를 쫓아낸 자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당신 앞에서 있을 따름이요. 당신은 로마에 원한이 있는 사람이요. 당신네 나라의 치욕을 멈추게 하고 싶으면 나의 비참한 처지를 이용하시오. 나의 복수심을 이용하시오.” 아우피디우스가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그는 자신의 적이었던 볼키스족과 손을 잡고 로마의 적이 되었다. 그가 합류하자 로마는 볼키스족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로마가 점령했던 곳들은 볼키스족에 짓밟히고 그들의 손에 들어갔다. 로마가 함락되는 것도 이제 시간문제였다. 로마의 평민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을 선동해 코리올라누스를 쫓아낸 호민관들과 그들에 편승한 귀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날뛰었다. 로마는 안으로는 평민들로부터 압박을 받았고 밖으로는 코리올라누스의 공격으로 불바다가 되기 직전이었다. 그러자 그들은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코미니우스가 파견된 것은 그래서였다. 그는 코리올라누스에게 늘 우호적이었던 사람이었다. 코리올라누스라는 명예로운 칭호를 그에게 부여한 사람도 총사령관이었던 그였다. 그러나 코리올라누스는 자신을 무척 아꼈던 사람이 아무리 설득해도 꿈쩍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는 이제는 자신을 코리올라누스라고 부르지 말라며 “로마를 불태워 버리고 스스로 이름을 짓겠다”라고 했다. 코미니우스는 같이 피를 흘리며 싸웠던 전투를 상기시키며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첫 번째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자 로마에서는 메네우스를 보냈다. 그가 누구인가. 아버지가 없는 코리올라누스에게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었다. 실제로 코리올라누스는 그를 아버지라고 불렀다. 그가 말했다. “아들아! 너는 지금 우리를 태워죽일 준비를 하고 있구나. 그 불을 끌 물을 내가 가져왔다. 오지 않으려고 했다만 나 말고는 네 마음을 움직일 사람이 없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왔다. 로마와 애원하는 동포들을 용서해다오.” 그는 인간적인 호소로 분노의 불길을 끌려고 했다. 아버지보다 더 아버지 같은 자기의 말이니 들어줄 줄 알았다. 그

러나 코리올라누스는 요지부동이었다. “저는 아내도 어머니도 자식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매여 있습니다. 제가 복수하려고 이려는 것은 맞지만 용서하고 말고는 이제 볼키스족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는 복수에 눈이 먼 사람이었다. 메네니우스가 로마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전한 말처럼 그는 기계가 되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인간-기계. “그는 기계처럼 걷고 걸을 때 땅이 움츠러들었다. 눈길은 갑옷을 뚫을 것 같았고, 말하는 소리는 종소리 같았고, 콧소리는 대포 소리 같았소.” 그러니 그에게서 아무 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말이었다. “수호랑이에게 젖이 없는 것만큼이나 그에게는 자비심이 없었소.” 그랬다. 수호랑이에게서 젖을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기계가 된 코리올라누스에게서는 자

1) 이 지점에서 셰익스피어의 이야기와 로마 역사가는 미세하게 입장을 달리한다. 셰익스피어는 코리올라누스의 마음을 녹이는 것이 전적으로 그의 아내와 아들과 함께 나타난 어머니라고 하면서 그녀가 자발적으로 온 것인지, 아니면 누구의 권유에 온 것인지 밝히지 않지만, 티투스 리비우스는 그의 어머니가 어떻게 아들한테 가게 되었는지 소상하게 밝히고 있다. 리비우스에 따르면 로마가 멸망의 위기에 처하자 부인들이 코리올라누스의 어머니와 아내가 사는 집으로 몰려가서 “남자들의 칼이 로마를 지킬 수 없으니 이제는 여자들이 기도하고 눈물로 로마를 지켜내야 한다”며 그들을 설득했다. 그렇게 해서 코리올라누스의 어머니는 아내와 자식을 데리고 여자들과 함께 코리올라누스를 찾아갔다. 결국 그를 설득한 것은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떻게 네가 너를 낳아주고 길러준 이 나라를 파괴할 수 있다는 말이나. 너는 로마를 보면서 이 벽 안에 너의 가정과 신과 어머니와 아내와 자식이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더냐? 내가 어미가 아니었다면 로마는 지금처럼 포위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한테 아들이 없었다면 나는 자유로운 땅에서 자유로운 여자로 죽었을 것이다. 이보다 더 치욕스러운 수가 없구나.” 그는 어머니의 말과 아내와 자식의 비통한 모습, 그리고 같이 온 여자들이 내는 비탄의 소리를 듣고 군사들을 물렸다. 여자들, 특히 어머니의 눈물이 아들을 돌려세운 것이다.

비심을 기대할 수 없었다. 로마는 곧 불길에 휩싸일 것이었다. 이제는 군사력이나 외교로도 그것을 막을 길이 없었다. 그러나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 코리올라누스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그의 아내, 즉 며느리와 어린 손주를 데리고 그를 찾아갔다. 아니, 그들만이 아니라 많은 여자와 함께 갔다.⁴⁾ 물론 그는 처음에는 어머니의 말을 아예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를 보자 로마와 타협하거나 군대를 물리라는 말은 하지 말라고 했다. “어머니의 이성으로 저의 분노와 복수심을 누그러뜨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어머니는 애원했다. “너를 보면 어머니와 아내와 아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가슴이 뛰어야 하거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아들이자 남편이자 아버지인 네가 조국을 갈가리 찢어놓는 것을 보아야 한다니! 너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기도도 못 하게 만들었다. 우리에게는 너도 중요하고 로마도 중요하다. 그러니 어찌 기도를 할 수 있겠느냐. 어느 쪽이 이기든 우리는 슬퍼하게 되어 있다. 네가 이기면 로마가 없어지고, 로마가 이기면 네가 없어지게 될 테니 말이다. 그러나 네가 쳐들어와서 로마를 짓밟는 것은 네 어머니의 자궁을 짓밟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는 쌍방에 득이 되도록 화해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그렇게

되면 그는 조국을 멸망시켰다는 오명을 쓸 필요가 없고, 볼키스족은 자비를 베풀게 되고 로마인들은 고마워하게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울면서 애원했다. 조국을 배반하지 말고 조국에 살고 있는 가족을 생각하려고 애원했다. 그러나 그는 고덕하지 않았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다. 그러자 어머니는 같이 온 여자들을 향해 말했다. “여자들이여, 무릎을 꿇으십시오. 무릎을 꿇어 그를 창피하게 만듭시다. 그에게는 우리의 기도에 동정하는 마음보다 자존심이 더 중요한 모양입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로마로 돌아가서 이웃들과 같이 죽읍시다. 그의 어머니는 볼키스족인 모양입니다. 그의 아내는 코리올리에 있는 모양입니다. 이 아이가 그를 닮은 것은 우연인 모양입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울었다. 그녀를 따라 그의 아내도 울고 어린 아들도 울었다. 그들과 함께 온 많은 여자들도 비통한 울음을 울었다.
그 울음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우는 어머니를 보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아들이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자신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어머니. 자신이 아니었으면 평화롭게 노년의 삶을 살아가다가 평화롭게 죽어갈 어머니. 그 어머니가 치욕감에 울고 있었다. 결국 그는 군대를 물리고 로마와 협정을

맺기로 했다. 어머니의 울음이 아들이 일으킨 전쟁의 명분을 무효화시켜 버린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한 결정이었다. “아, 어머니, 어머니! 아! 당신은 로마를 위해 행복한 승리를 챙겼습니다. 그러나 죽음까지 아닐지 모르지만, 당신의 아들을 가장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만드셨습니다.” 사실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평화협정이 볼키스족과 로마, 아들을 포함한 모두에게 이로울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가 그녀의 눈물에 굴복한 결과는 그의 죽음일 것이었다. 그녀는 그걸 알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로마로 돌아가지 않고 볼키스족에게 돌아갔다. 그리고 볼키스족의 장군 아우피디우스는 “그가 여자들의 값싼 눈물에 우리의 거사에 들어간 피와 노동을 팔아먹었다”라고 생각해서 그를 죽게 했다. 복수심의 끝은 허무한 죽음이었다.

로마를 구한 것은 남자들의 칼이 아니라 여자들의 눈물, 특히 어머니의 눈물이었다. 아들은 다른 여자와 함께 무릎을 꿇고 울면서 애원

하는 어머니에게 저항할 수 없었다. 원한 때문에 인간-기계가 되었던 그는 어머니의 눈물로 인해 인간으로 돌아왔다.²⁾ 그 눈물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로마는 멸망했을 것이다. 볼키스족에게 짓밟히고 수많은 과부들과 고아들이 생겨났을 것이다. 그가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내와 아들도 어쩌면 다른 사람들과 같은 운명을 맞았을 것이다. 그렇게 무자비한 복수극이 끝나고 그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였을까? 잿더미가 된 로마를 바라보는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 미움과 증오와 복수심의 끝에는 지독한 허무감과 삶의 비애만이 남았을지 모른다. 그러지 않도록 한 것은 어머니의 눈물이었다.

세익스피어가 전하는 로마 장군 코리올라누스의 이야기는 원한과 복수심을 다독이고 억눌러 사랑 쪽으로,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것에 희생될 사람들에 대한 연민 쪽으로 돌려 놓아야 하는 이유를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도 증언한다. 🍷

2) 세익스피어는 그 어머니가 이후에 아들의 죽음에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다. 어머니가 로마로 돌아가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고 코리올라누스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다는 얘기만 전할 뿐이다. 그러나 진짜 비극은 세익스피어가 말해주지 않는 부분, 즉 어머니가 이후에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그것으로 인해 겪게 될 절망과 상실의 트라우마일지 모른다.

신앙인의 영화 보기와 세상

시작에 대한 단상 (2)

정현영 요셉, 중견사제연수원 연수사제



1889년에 에디슨과 디克森은 키네토그래프라고 하는 카메라를 발명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촬영된 필름을 상영할 수 있는 키네토스코프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만든 장치는 동시에 많은 사람이 관람하는 영사 방식이 아니었고, 개인적으로 기계 장치 안에서 상연되는 장면을 들여다보는 방식이었습니다. 마치 키오스크들이 늘어서 있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을 주문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반면에 1895년에 첫 상영을 한 뤼미에르 형제의 시네마토그래프는 촬영과 상영이 모두 가능한 장치였습니다. 뤼미에르 형제는 여러 사람을 모아 놓고서 오늘날과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영화를 보여주었고, 이것이 영화의 시작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촬영 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뤼미에르 형제의 영화들이 주로 밖에서 사람들의 일상적인 풍경을 대상으로 했다면, 에디슨은 블랙 마리아라고 하는 스튜디오를 만들어 놓고서 그 안에서 무용, 보디빌더, 이발소, 권투 등의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그래서 뤼미에르 형제는 수많은 촬영 기사들을 전 세계에 파견했고, 그들은 다양한 풍경들을 촬영해서 보내왔습니다. 반면에 에디슨은 스튜디오 안으로 자신들의 아이디어에 맞는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촬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기사가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저마다의 특성을 지닌 장치들을 발명했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뤼미에르의 방식을 영화의 탄생으로 인정해서 마치 에디슨과 뤼미에르의 대결에서 뤼미에르가 승리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들의 촬영과 상영 방식은 모두 영화사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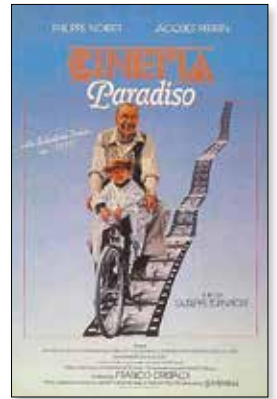
먼저, 영화의 상영방식을 보면 처음에는 극장에서의 상영이 전부였습니다. <시네마 천국>(1988)이라는 영화는 극장이 단순히 영화를 보는 장소일 뿐 아니라 마을의 축제 구실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달리 떠들썩한 극장의 풍경은 낯설기는 하지만 정겨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독점적인 지

위를 누리고 있던 영화에 제일 먼저 위기가 찾아온 것은 세계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위기는 텔레비전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은 마치 각 가정의 한 대씩의 키네토스코프를 가진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영화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만, 텔레비전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극장은 텔레비전이 줄 수 없는 특별한 체험이 필요했습니다. 화면은 점점 커졌고, 3D 화면에 대한 구상도 일찍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영화와 텔레비전은 공존의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에도 가끔은 “그 영화는 극장에서 봐야 제대로 볼 수 있어!”라고 하는 말을 듣곤 합니다. 이는 텔레비전으로만은 충족되지 않는 영화적 체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연장선에서 모바일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통해서 각 가정으로 들어온 키네토스코프가 이제는 사람들의 손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부담스러운 통신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또는 기꺼이 모바일에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환경은 영화도 텔레비전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작 단계의 간편화와 접근성입니다. 누구나 시나리오-촬영-상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은 스마트폰이 매개가 된 인터넷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상업영화는 특별한 사람들의 작품이라고 여기지만 백여 년 전에 사람들이 포착하고자 했던 ‘움직



시네마 천국, 1988
Cinema Paradiso
드라마, 멜로/로맨스
프랑스, 이탈리아 1124분

이는 사진'은 누구나 쉽게 찍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편집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라는 형식으로 인터넷 안에서 상영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비록 극장처럼 잘 갖추어진 시설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프로젝터를 이용해서 작은 영화관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키네토스코프와 시네마토그래프가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영화를 시작했지만, 오늘날에는 그 두 가지 형식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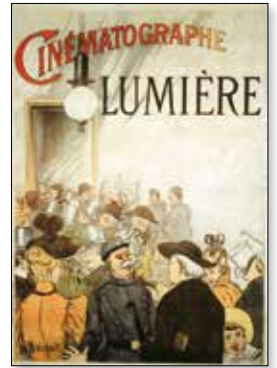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먼저 이전과의 단절을 뜻합니다. 영화가 시작됐다는 것도 이전과는 다른 어떤 것이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은 사진만으로는 구현할 수 없었던, 움직임을 담는 새로운 장치가 개발됐고 그 장치를 통해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어떤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차의 도착>(1895)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충격을 줄 수 있었던 것도 단순히 열차를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열차를 본 장소와 형식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무언가를 시작할 때에는 내가 만든 것이 동시대의 다른 사람들이 만든 것과는 다른 독창성을 갖고 있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시작

의 독창성은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키네토스코프를 보면서 자신만의 장치를 구상했던 루미에르는 마치 연극처럼 한 편의 영화를 여러 사람이 동시에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략은 성공했습니다. 모바일은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영화적 의미로 한정지어서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장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고려하지 않고 순수하게 모바일 환경만을 생각한다면) 이제 영화 관람은 장소의 제약에서 벗어났습니다.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어디에서도 원하는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영화를 보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를 보는 도중에 다른 일이 생기면 그 일을 마치고 다시 그 영화를 중단된 지점에서도 볼 수 있고 처음부터 다시 볼 수도 있습니다. 영화를 보는 중에 원하지 않는 장면들은 건너뛴 수도 있고 영화를 보면서 다른 일을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영화를 관람하는 것뿐 아니라 영화를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장편영화를 찍어서 화제가 됐던 때가 벌써 10년 전입니다. 오늘날에는 아무도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찍을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상

업영화는 아니더라도 수많은 동영상은 스마트폰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짧은 분량으로 만든 동영상이 화제가 되면 장편영화로 제작되기도 합니다. 여러 다양한 기회가 영화라는 형식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을 영화의 새로운 시작점으로 불러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면 우리 삶의 모습도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변화가 크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자연과 더불어 살아간다면 그 변화는 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도시에 머물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빠른 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생존의 문제가 된 지 오래됐습니다. 조금만 도시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면, 어느새 낯선 풍경들이 주변에 가득합니다. 도시 간의 차이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형태를 달리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서울과 뉴욕과 파리의 풍경이 다르지만, 도시를 기반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모양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겉모양만 가지고 우리는 전혀 다른 곳에서 산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영화를 담는 그릇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화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열차의 도착, 1895
L'Arrivée D'Un Train A La Ciotat
감독 루이 루미에르
촬영 루이 루미에르
국가 프랑스



신앙의 땅, 이스라엘을 거닐다

예수님의 온기가 느껴지는 베타니아, 벳파게

심연선 소화데레사, 이스라엘 전문 여행 가이드

예루살렘 구도시를 빠져 나와 베타니아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베타니아는 복음서에 열두 번 등장하는 지명인데 한 번만 다른 장소를 가리키고(요한 1,28), 나머지 열한 번은 같은 장소를 말합니다. 다른 한 번은 요르단 강 동편,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받으라고 선포하며 활동하던 지역이고, 나머지 언급된 베타니아는 예루살렘에서 열다섯 스타디온쯤 되는 가까운 곳(요한 11,18)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라자로, 마르타, 마리아가 살고있던 곳이며, 예수님께서 식탁에 앉으실 때 어떤 여자가 값비싼 순 나르드 향유가 든 옥합을 깨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던(마르 14,3) 일이 있었던 동네이기도 합니다.

베타니아는 예루살렘 동쪽의 올리브 산을 넘으면 바로 있는 마을입니다. 3km도 안되는 거리이고 걸어가면 한 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스라엘 정부에서 분리 장벽을 세우는 바람에 차를 타고 40분~1시간을 이동해서 가야만 합니다. 이곳의 현재 지명은 ‘al-Eiz-

ariya’(알 아자리에) 입니다. 예루살렘 다마스쿠스 문 근처의 정류장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오가는 버스를 타고 가실 수 있습니다. 편도로 45분 정도 소요되는데, 기사 아저씨에게 목적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아저씨 가까이에 앉아 구글맵을 보며 적당한 곳에서 내려달라고 하면 됩니다. 역시 팔레스타인 버스를 타는 것은 난이도가 높습니다. 택시를 추천합니다. 제법 큰 규모의 팔레스타인 동네인데 반 유대감정이 있는 곳여서 방문을 계획하신다면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 자세히 체크를 하시고 되도록 혼자 가지 않으시기를 당부합니다. 시위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긴장을 잔뜩한 채 만나는 베타니아 마을은 평범한 팔레스타인 마을입니다. 네모진 건물, 누구도 그다지 신경쓰지 않는 것 같은 거리의 모습들, 예루살렘 무슬림 구역에서 보던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동하여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작은 골목을 따라 가면 아름다운 성당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벌꿀색 돌로 마감이 된 성당 벽면에 오후의 햇볕이 비추어 은은한 채광을 만들어냅니다. 바깥 거리에서 차곡 차곡 쌓였던 긴장의 짐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따뜻함에 녹아내리어 마음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성당 뒤편에는 오래된 성당의 잔해들이 있는데 이미 비잔틴 시대, 4세기 때부터 이곳에 성당이 있었음을 많은 기록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게리아의 순례기’에 보면 “라자로의 무덤에 도착하면...”이라고 언급이 되어있습니다. 십자군 시대인 1138년에 큰 규모의 베네딕토 수도원이 건립되었었고, 현재도 그 유적들이 여러군데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베타니아의 라자로 기념 성당은 안토니오 발루찌에 의해 건축되었습니다. 안토니오 발루찌는 참 행복선언 성당, 눈물성당, 겐세마니 대성당, 성모방문성당, 타보르산 주님의 거룩한 변모 기념성당 등, 프란치스코회 관할 아래 있는 성당 대부분





↑↓ 라자로 기념성당 내부



↑ 베타니아 라자로 무덤 내부



↑ 베타니아 라자로 무덤 외부

의 건축에 참여한 이탈리아 건축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베타니아의 라자로 기념성당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하늘을 향한 돔에 뚫린 창으로 빛이 내려오고, 그 원형 돔을 마주하는 반원 네 군데에 아름다운 프레스코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르타야, 마르타야...” 하고 말씀하시는 장면(루카 10,41),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하고 말씀하시는 장면(요한 11,43),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식탁에 앉아계신 예수님 머리에 어떤 여인이 나르드 향유를 붓는 장면(마르 14,3),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요한 11,25) 하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7가지 표징 중 가장 마지막으

로 등장하는 절정의 순간! 왠지 예수님이 라자로를 살리시고 자리를 떠나신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 온기가 느껴지는 장소입니다. 생명과 죽음, 그리고 내 삶 속의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기에 더없이 좋은 성당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따르는 순례 여정이지만 이곳은 왠지 그것이 더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감격의 시간을 보내고 성당 바깥으로 나오면 라자로의 무덤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요 성지에 늘 함께 있는 정교회 성당도 보이고, 이슬람 사원도 보입니다. 이십여 개의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약간의 공간이 있는데, 그곳이 예수님께서 라자로

에게 나오라고 부르신 곳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다시 더 내려가면 라자로의 무덤으로 사용되었던 방이 있습니다. 묘한 기분이 듭니다. 살아 있는 사람으로 무덤 안에 들어온 것도, 이곳에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냄새가 나는 라자로가 예수님이 부름에 따라 살아나왔다는 것도, 지금 이 순간 이 장소에 내가 있는 것도 ‘신비’라고 표현하기엔 다소 부족하지만, 참 그러합니다.

순례는 단체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곳에서 머무는 시간과 인원이 허락된다면 잠시 죽음에 대해 묵상하고 지도 신부님이 먼저 나가신 후에 바깥에서 예수님 역할을 하시며 “테레사야, (각자의 세례명을 부르시

며) 이리 나와라.” 하고 부르시면 밖으로 나가는 체험을 합니다. 돌로 된 지하 공간 안에 잠시 머무르다 불리움에 대답하고 나오는 것 뿐인데, 마치 죽었다 살아난 라자로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렇게 나오면 오르막길 너머로 시멘트로 만들어진 분리 장벽이 보입니다. 그 분리 장벽이 없으면 바로 벧파게로 갈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셨다면 체크포인트를 찾아서 넘어가 보는 것도 좋은 체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베타니아에서 머무르셨다가 벧파게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셨으니까요. 그러나 체크포인트



↑ 베타니아 라자로 기념성당 외부



↑ 벧파게 성당 내부



↑ 벧파게 성당 외부

트를 찾기도 어렵고 죄지은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 군인경찰의 검문을 받으면 기분도 나빠지고 해서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서 올리브산 뒤편의 벧파게 성당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스라엘 지명 중에 ‘벧/베’라고 시작되는 곳이 많은데요 이것은 아람어로 ‘베이트’라는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들레헴’ - 빵의 집, ‘베텔’ - 하느님의 집, ‘벧사이다’ - 어부의 집 등이 있고, ‘베타니아’는 가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벧파게’는 익지 않은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올리

브 산 근처 벧파게’ 라고 공관복음에 한 번 씩 언급이 되는 지명입니다. 어린 나귀를 데려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던 곳이죠. 이곳에 있는 기념성당도 베타니아의 라자로 기념성당처럼 프란치스코회 관할 아래 보존되고 있습니다. 본 성당은 순례객이 끊임없이 오갈 때는 문을 열어놓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초인종을 눌러야 수사님 또는 신부님이 열어주십니다. 성당 내부에 들어가면 사방의 벽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이 프레스코화로 장식 되어있습니다. 승리를 뜻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하는 군중들의 모습, 미처 종려나무 가지를 준비하지 못

한 사람은 올리브 가지를 준비하는 모습, 자기 겹옷을 바닥에 까는 모습 등이 그려져 있는데, 겹옷을 급하게 벗는 사람의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제대 왼쪽의 울타리 안에 있고 프레스코화로 장식된 돌이 있는데,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실 때 밧으신 것이라고 합니다. 방금 다녀온 베타니아 성당보다는 조금 소박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성당 안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께 환호하는 군중의 큰 목소리가 성당 안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구나!’ 하며 기뻐하는 이천년 전의 군중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반면 차분한 표정으로 어린나귀 위에 앉으신 예수님은 갈 길을 겸손하게 가고 계십니다.

어느덧 2023년이 되었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 이전의 일상을 서서히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아름답고 기쁜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웃는 날이 더 많은 2023년이 되시기를 기도 중에, 미사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

정석의 이 도시(5) - 라트비아 도시 탐험

수도 리가와 투라이다 성의 러브스토리

정석 예로니모_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발트 3국의 첫 나라 리투아니아 여행을 마치고 라트비아로 향했다. 라트비아로 향하는 차 안에서 테니스 스타 오스타 펜코가 떠올랐다. 2017년 올림픽 테니스코트에서 열린 코리아 오픈 결승전을 ‘직관’했는데, 브라질의 하타드 마이어와 결승에서 만난 오스타 펜코는 말 그대로 ‘닥공’, 닥치고 공격하는 스타일여서 관중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고, 역전승을 거두어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라트비아 선수여서였을까? 처음 찾아가는 나라 라트비아를 생각할 때, 나에게 떠오른 건 오스타 펜코가 전부였다. 전혀 모르는 나라를 찾아가는 마음이 설레고 들떴다.

라트비아 국경을 넘고 수도 리가를 향해 다가가는 차 안에서 조용히 ‘여행자의 기도’를 드렸다. 2014년 스페인에 갔을 때 여행의 신비로움을 깊이 체험하면서 하느님께 드린 기도였다. 낯선 곳을 여행할 때 무엇에 집중하는가? 사진을 찍고 기록을 남기는 데 집중하는 사람도 있고, 휴식을 위해 여행을 떠난 사

람들은 가만히 자신을 내려두는 데 집중할지 모른다. 도시를 연구하는 나 같은 사람은 낯선 도시를 공부하고 싶은 욕심에 최대한 많이 보고, 듣고, 사람을 만나고, 묻는 데 집중하곤 했다. 그런데 2014년 스페인 여행 때, 특히 아빌라에서 성녀 데레사를 만났을 때, 여행은 시공을 초월해 사람들을 만나도록 부르시는 하느님의 특별한 초대이고 선물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하느님께 드렸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시간 속에 내내 계신 당신, 여기에도 저기에도 어디에나 늘 계셨던 당신, 여행자가 당신께 청합니다. 제가 있던 곳을 떠나 낯선 이곳에 왔습니다. 제가 있지 않던 시간으로 들어가 이분들 삶을 만나려 하오니 제 손을 잡아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듣게 해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당신은 다 보고 다 들으셨지요. 당신은 다 알고 계시지요. 공감하게 해주세요. 그분들을 기억하고 기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서. 시간을 잇고 공간을 엮어 만나고 싶습니다. 역사 속 그



↑ 다우가바 강에서 바라본 리가 도심부 풍경

사람을. 이곳 저 사람을. 함께 여행 온 이 사람들.”

라트비아는 크지 않은 나라이다. 국토면적은 6만5천 제곱킬로미터로 우리보다 작고 인구도 190만 명 정도, 수도 리가 인구도 64만 명으로 작은 도시이다. 천주교 신자가 많은 리투아니아와 달리 라트비아는 개신교(루터교)가 35%로 가장 많고, 천주교(25%), 러시아 정교회(20%) 순으로 많다. 국토의 3분의 2가 삼림, 목초지, 습지대이고, 1인당 국민소득은 1만8천달러이다. 라트비아 국민들은 노래와 춤을 무척 좋아해 1873년부터 노래와 춤의 축제를 5년마다 개최하고 있다. 이웃 나라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와 함께 여는 ‘발틱 노래와 춤의 축제(Baltic Song and Dance Celebrations)’는 2008년 유네스코 세계유

산으로 지정되었다.

라트비아에 유럽문화가 전해진 것은 12세기로 독일 브레멘의 알베르트 주교가 독일기사단을 이끌고 와서 토착민에게 가톨릭을 전파하면서부터였다. 1201년에 수도 리가가 건설되었고, 독일 무역상들이 이주해와 리가는 상업중심지로 발전하였으며, 1282년에는 유럽 상인조합들의 도시동맹인 한자동맹에 가입하였다.

리투아니아처럼 라트비아도 폴란드, 스웨덴, 러시아 등, 외세의 지배를 오래 받아온 슬픈 역사를 가진 나라다. 1918년 독립을 선포했으나 2차 세계대전 중 소련에 점령되어 소비에트연방국가로 지내오다, 1991년 9월 6일 독립의 기쁨을 맛보았다.



↑ 리가 검은 머리 전당 건물



↑ 리가 삼형제 건물

다우가바 강 하류의 바다와 만나는 곳에 수도 리가가 위치해 있다. 리가가 수도가 된 이유는 너른 강이 있어 무역항의 적지였기 때문이다. 호텔에 짐을 풀 뒤 다우가바강에서 리가의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작은 배를 탔다. 우리 일행만 오붓하게 탄 배의 잘생긴 선장은 딱 마음에 드는 노래들을 골라 틀어주었다. 저녁놀은 강을 붉게 물들였고, 뜨겁게 달구어진 대지를 식혀주는 선선한 강바람이 불어왔다. 음악은 특별히 더 감미로웠고 그래서였을까 낯선 도시가 친근하게 느껴졌다. 그렇게 라트비아의 첫날을 보내고 단잠을 잤다.

둘째날 오전엔 리가 옛 도심부를 천천히 걸었다.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처럼 라트비아 수도 리가도 옛 도시의 모습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어 1997년에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뽀쪽뽀쪽 하늘을 찌르는 성당의 첨탑들과 조형물이 많아 인상적이었다.

리가 도심에는 아름다운 성당과 개신교 교회 건물들이 많다. 1776년에 지어진 ‘돔 루터교회’는 겉모습도 아름답지만 파이프 오르간이 더 유명하다. 13세기에 건립된 ‘성 베드로 교회’는 당초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건립되었다가, 14-15세기에 고딕양식으로 개조되었다고 한다. 123미터 높이 탑의 전망대에 올라가면 리가 시내의 아름다운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그리스도 탄생 정교회 대성당’은 라트비아 국민들처럼 외세 지배의 아픔을 겪은 성당이다. 러시아 지배를 받던 1876년에 건립된 성당은 1960년대 소련 지배하에서는 카페로 바뀌었고 천정에 그려진 아름다운 성화들도 지워졌다고 한다.

리가 도심에서 단연 눈길을 끄는 건물은 ‘검은 머리 전당’ 건물과 광장이다.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의 ‘검은 머리’라는 이름의 상인조합(길드)이 리가에 지은 건물로 리가가 유럽의 무역중심지임을 보여주는 건물이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 폭격으로 파괴되었지만, 2001년 리가 건설 800주년을 기념하여 재건되었고, 잠시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된 적도 있었다고 한다.

검은 머리 전당 뒤 성 베드로 성당과 성 요한 성당 사이 청동으로 만든 ‘브레멘 음악대’의 동물 조형물도 사람들이 즐겨 찾는 리가의 명소 가운데 하나다. 그림 형제가 지은 동화 ‘브레멘 음악대’에 등장하는 네 동물이 등에 올라타 탑을 쌓은 모습의 조형물로 1990년 독일 브레멘 시에서 리가 시에 기증했다. 당

나귀가 제일 아래에 있고, 그 위로 개, 고양이, 닭이 있는데 네 동물들을 모두 만져야 복을 받는다고 한다. 보통 키의 사람은 당나귀와 개의 코까지 닿을 수 있어서 까치발을 하고 사진을 찍는 사람들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좁은 골목길에 나란히 서 있는 ‘삼형제 건물’도 리가의 명물이다.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 서로 다른 시대에, 서로 다른 양식으로 지은 세 건물이 마치 정다운 형제처럼 어깨를 맞대고 나란히 서 있다. 맨 오른쪽 하얀 건물이 가장 먼저 15세기에 지어졌는데, 작은 창문들과 비스듬히 기운 건물의 입면이 조금 애처로워 보인다. 둘째에 해당하는 가운데 건물은 베이지색으로 가장 화려하게 뽐내듯 서 있는데 리가시 건축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맨 왼쪽 연두색을 띤 막내는 조금 왜

소한 듯 다소곳이 서 있다. 한국에서 온 손님들을 알아봤는지 튜바를 든 노인이 만형 건물 앞에서 아리랑을 구성지게 연주해주어 반가웠다.

‘자유의 여신상’도 놓칠 수 없는 리가의 명소다. 독립전쟁(1918-1920)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시민 성금을 모아 1935년에 세웠고, 조각가의 칼리스 잘레라 작품이다. 밝은 초록색 여인이 세 개의 별을 들고 선 모습인데, 라트비아 신화에 등장하는 사랑의 여신 ‘밀다’가 라트비아를 구성하는 세 지역(쿠르제메, 비제메, 라트갈레)을 받든다는 뜻이라고 한다.

자유의 여신상 맞은편 라이마 광장 바닥에 발바닥 모양의 조형물이 있다. 발바닥 아래에는 ‘발트의 길, 1989년 8월 23일, 탈린, 리가, 빌뉴스’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 소비에트연방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발트 3국 세 나라 국민 200만 명이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에서 라트비아 수도 리가를 지나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까지 이르는 620킬로미터의 인간띠를 만들었던 바로 그 현장임을 알리는 표지여서 가슴이 뭉클했다.

둘쨌날 오후에는 리가 외곽의 시골다 **투라이**

다 성에 다녀왔다. 투라이다 성은 리가 동북쪽 1시간 거리에 있고, 발트 3국의 평평한 지형과 달리 드물게 400미터가 넘는 고지대여서 너른 숲이 내려다보이는 전망 좋은 성이다. 투라이다는 ‘신의 정원’이란 뜻으로 천년 가까운 중세의 성이다. 1214년 리가의 대주교 주교관으로 건립되었고, 폴란드와 스웨덴, 러시아 군인들에 점령당한 뒤 1776년 파괴되었던 성을 1950년대에 다시 복원하였다. 투라이다 성 제일 높은 둥근탑에 올랐다. 좁은 원형 계단을 한참 걸어 올라가며 전망대가 나오고, 가우야 강과 초원의 풍경이 활짝 펼쳐진다. 좁은 창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땀을 식혀주었다. 가까이 있는 구트만 동굴에도 가보았다. 동굴은 깊지 않은데 흘러나오는 물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투라이다 성에는 아주 애절한 러브스토리가 전해져오고 있다. 5월의 처녀 또는 투라이다의 장미라 불리던 아름다운 여인 메이어와 시골다성의 정원사 빅토르는 서로 사랑하는 연인으로 매일 밤 구트만 동굴에서 몰래 만나 둘만의 달콤한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메이어를 짝사랑하던 폴란드 탈영병이 구혼을 했으나 거절당했고, 가짜 편지를 써서 메이어를 유인한 뒤 겁탈하려 했다. 메이어는 자신의 목에 두른 마법의 스카프를 칼로 쳐 찢



↑ 리가 자유의 여신상
↓ 자유의 여신상 앞 발바닥 조형물



↑ 투라이다 성에서 내려다 본 풍경
↓ 애절한 러브스토리의 현장 구트만 동굴

을 수 있다면 당신의 아내가 될 것이라고 말했고, 사랑에 눈이 먼 탈영병은 칼로 내리쳐 메이어를 죽게 한 뒤 숲에 들어가 자살했다고 한다. 메이어를 만나러 온 빅토르는 연인의 시신을 안고 성으로 들어갔다가 살인범으로 몰렸고, 나중에 누명이 풀렸지만 사랑하는

연인을 잃은 슬픔으로 내내 고통스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 둘이 지상에서 다하지 못한 사랑을 지금은 천국에서 맘껏 나누고 있겠지 생각하며 두 연인을 위해 기도했다. 라트비아는 매우 사랑스러운 나라다. 🇱🇻

그림으로 만나는 성인이야기

박해시대에 순교한 성녀들: 우르술라, 바르바라, 체칠리아

윤인복 소화테레사_ 인천가톨릭대학교 그리스도교미술학과(대학원) 교수

그리스도교는 선교 초기에 로마제국의 관용적인 태도로 종교 활동의 자유를 누렸다. 그러나 로마가 사회·정치적으로 점차 혼란기에 들어서자 확장세에 있던 그리스도교는 정치적인 탄압을 받았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Diocletianus: 재위 284~308) 시기에는 그리스도교의 탄압이 절정에 달했다. 이후 콘스탄티누스 황제(Constantius I: 재위 306~337) 시기에 이르러 밀라노 관용령(313년)을 내렸고, 콘스탄티누스는 스스로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했다. 이후 그리스도교



<동정녀와 성녀들의 행렬>, 6세기경, 산 아폴리나레 누오보, 라벤나, 이탈리아



안토니오 비바리니, <성녀 우르술라 제단화>, 패널에 템페라, 1440-1445, 교구박물관, 브레시아, 이탈리아

는 국가에서 장려하는 제도로서 황제가 임명한 주교들에 의해 관할되는 교회로 발전하게 되었다. 하지만, 탄압으로 수많은 순교자가 생겼고, 그 가운데 잘 알려진 성녀들로는 루치아, 마르가리타, 바르바라, 아가타, 아녜스, 우르술라, 알렉산드리아의 카타리나 등이 있다.

동정 성녀 우르술라

성녀 우르술라(St. Ursula, 4세기경)에 관한 이야기는 세월을 따라 그 내용이 풍부하게 더해졌다. 10세기에 기록된 성인전에는 8세기에 독일 쾰른의 고대 그리스도교 묘지에서 젊은 여인들의 유골이 발견되었다고 했다. 발견된 유골과 묘비에는 우르술라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그러나 이 묘비의 해석이 와전되어 그녀는 만천 명의 처녀와 함께 순교했다는 전설이 생겨났다. 묘비에는 우르술

라를 포함한 11M에 대한 내용이 새겨져 있었다(XIMV). 그런데 ‘XI MV’가 ‘11명의 동정 순교자’로 번역되어야 하는데, ‘11,000명의 동정녀’로 번역되었다. 순교(Martyres)의 약자 ‘M’을 1천(Milla)의 약자로 번역한 데서 온 오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세기 기록된 『황금전설』에서는 그녀와 만천 명의 처녀 이야기를 경이롭게 풀어 놓았다.

그리스도교인인 영국 왕의 딸이었던 우르술라는 두 가지 조건을 들어준다는 약속을 받고 이교도인 왕자와 약혼했다. 첫 번째는 왕자가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우르술라의 신분에서 어울릴만한 열 명의 처녀와 그들에게 각각 천 명의 수행자를 내려 주고 이들과 함께 로마까지 3년의 순례 여행을 달라는 것이었다. 왕자는 두 조건을 모두 받아들였다.

우르술라와 일행은 배를 타고 독일의 쾰른을 거쳐 스위스의 바젤에 이르렀고, 그곳부터 걸어서 로마에 도착하여 교황을 만났다. 이들은 순례 여행을 마치고 다시 귀향길에 올랐으나, 이들이 다시 도착한 쾰른에는 훈족이 점령하고 있었다. 훈족의 왕 아틸라는 우르술라와 그 일행에게 그리스도교를 포기하도록 고문을 했으나, 이들은 신앙을 끝까지 지키며 순교했다. 한편 아틸라 왕은 우르술라의 미모에 반해 청혼했으나, 거절당하자 그녀를 무참하게 화살로 쏘았다. 끝내 우르술라는 동정녀로 순교했다.

미술에서 우르술라는 로마 순례 여행에서 교황과 만남, 그녀의 순교를 예고한 천사와의 만남, 배를 타고 수많은 일행과 긴 순례 여행을 시작하는 모습, 순교 장면 등을 주제로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우르술라는 영국 왕의 딸인 공주로 왕관을 쓰고 있으며 순교의 종려나무, 순교 당한 화살, 죽음을 극복한 붉은 십자가가 그려진 흰 깃발, 배 등이 상징물이다. 때로는 그녀가 성모마리아의 자비로운 모습처럼 넓은 망토를 펼쳐 자신을 따르는 자녀들을 보호하는 모습으로도 그려진다.

이탈리아 화가 안토니오 비바리니(Antonio Vivarini, 1418경~1476경)는 브레시아의 성 베드로 인 올리벤토 성당의 세 폭 제단화의 중앙에 우르술라를 배치했고, 양쪽에 각각 성 베

드로(오른쪽, 열쇠와 성경책)와 성 바오로(왼쪽, 긴 검과 서한집)를 그렸다. 우르술라는 아름답고 우아한 복장에 화려한 왕관을 쓴 모습으로 공주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녀의 양손에는 붉은 십자가가 새겨진 커다란 흰 깃발을 들고 있다. 우르술라와 순례 여행을 동행한 수많은 젊은 여인 역시 죽음을 극복한 승리의 깃발, 순교의 의미를 지닌 깃발을 손에 잡고 그녀와 뜻을 함께하고 있다.

거룩한 성녀 바르바라

성녀 바르바라(St. Barbara, 4세기경)는 이교도인 디오스코루스의 딸로 영특하고 아름다운 미모를 지니고 있었다. 딸을 너무 사랑한 그녀의 아버지는 딸이 좋지 못한 사람과 가까이하거나 그리스도교인과 만나는 것을 우려하여 견고한 탑을 마련하여 그 안에 딸을 가두었다. 그러나 바르바라는 아버지가 여행으로 오랫동안 부재중인 틈을 타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된 딸에게 화가 난 아버지는 그녀를 매질하고 온갖 고통을 주고, 결박하여 재판관에게 넘겼다. 재판관은 그녀에게 배교를 요구하며 모진 고문을 가했지만, 죽음이 두려워 신앙을 버릴 그녀는 아니었다. 끝내 바르바라는 참수형을 선고 받았다. 15세기 피렌체의 독일인 공동체의 의뢰로 산 안눈치아타 성당에 피렌체 출신 코지모 로셀



코지모 로셀리, <성 요한 세례자와 성 마태오와 함께 있는 성녀 바르바라>, 1468-69년, 아카데미아 미술관, 피렌체

리(Rosselli Cosimo, 1439~1507)는 성녀 바르바라와 두 성인(요한 세례자와 마태오)의 자태를 장식적이고 우아하게 나타내고 있다. 그림의 가장 아랫부분에는 ‘독일인 공동체는 거룩한 성녀 바르바라의 축일을 기리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그림을 성녀에게 바친다.’라고 적혀있다.

그림 중심에 바르바라는 젊고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성 요한 세례자와 성 마태오 사이에서 있다. 그녀의 어깨까지 가지런하게 내려온 고운 금발의 머리와 보석 장식이 달린 붉은색 드레스에 푸른 망토는 그녀의 우아함을 한층 돋보이게 한다. 바르바라는 오른손에 순교의 상징인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있고, 왼손에는 탑 모양의 건축 모형틀을 들고 있다. 탑은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가두었던 탑을 상기시키고, 탑의 3개 창문은 그녀가 일꾼에게 삼위

일체를 상징하는 뜻에서 내도록 요청했다고 한다. 가끔 그림에서 성녀가 공작새 깃털을 들고 있는데, 이는 그녀가 체포되어 채찍질 당할 때 채찍이 공작새 깃털로 변했다는 이야기에 서 기인한 것이다.

오른쪽에는 성 마태오가 성경책과 단검을 들고 서 있고, 왼쪽에 피렌체의 수호성인인 성 요한 세례자는 관람자를 바라보고 있다. 그의 오른손은 바르바라를 가리키며 우리를 그녀 쪽으로 이끈다. 성인은 넘마 같은 짐승의 털로 만들어진 옷을 입고, 왼손에는 그의 전형적인 상징물인 갈대로 만들어진 십자가를 쥐고 있다. 그 위에 감긴 종이 위에 "하느님의 어린 양이다."(Ecce Agnus Dei)라고 적혀 있다. 또한 바르바라의 발밑에는 양쪽 어깨에 사자머리가 장식된 갑옷을 입고 널브러진 기사가 보인다. 턱수염을 가진 기사 얼굴은 공교롭

게도 그녀의 아버지로 전해진다. 그녀의 아버지는 딸이 사형이 선고되자 자신의 손으로 직접 딸을 참수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소행은 하늘이 어두워지고 마른뼋개가 번쩍이는 순간, 땅이 무너지는 듯한 천둥소리와 함께 그녀의 아버지는 벼락에 맞아 죽었다. 번개에 맞아 죽은 아버지에 근거하여 바르바라는 포탄, 번개, 광산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은 사람의 수호성인이 되었다. 아버지의 죽음은 바르바라가 죽기까지 신앙을 굳게 지킨 순교의 승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녀의 뒤에, 두 천사가 걷은 장막 뒤에는 천상의 세계를 연상케 하는 꽃들이 가득한 푸른 숲과 선명한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다.

음악가의 수호성인 성녀 체칠리아

파이프 오르간, 하프, 콘트라베이스, 류트, 비올라 그리고 모든 현악기는 성녀 체칠리아(St. Cecilia, 3세기경)와 함께 나타난다. 그녀가 등장하는 작품에서는 훌륭한 음악가, 무엇보다도 현악기와 건반 악기 연주자로 묘사되곤 한다. 그래서 그녀는 모든 음악가의 수호성인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체칠리아의 생애와 음악은 연관이 없다. 다만, 전승에 따르면 그녀가 결혼식에서 내적으로 하느님께 찬양하는 마음의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데, 이것이 와전되어 그녀는 오르간에 맞추어 노래한 것

으로 전해져, 음악의 주보성인으로 악기를 든 모습으로 등장한다.

체칠리아는 로마의 유서 깊은 명문 귀족의 딸로서, 신앙심 깊은 그리스도인으로 자랐으며 어려서부터 하느님께 몸을 봉헌했지만, 권세 있는 이교도 집안의 청년 발레리아노와 결혼했다. 그녀는 발레리아노에게 자신은 동정을 서약했으니 존중해주시기 바라며, 하느님의 천사가 자신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고 했다. 발레리아노는 그녀에게 천사를 보게 해주면 그녀의 요청을 받아들일겠다고 했다. 발레리아노는 그녀의 뜻에 따라 교리를 배우고 세례를 받게 되었고, 그는 체칠리아의 수호천사를 볼 수 있었다. 이때 그는 천사에게 장미 화관을, 성녀는 백합 화관을 받았다.

체칠리아는 로마의 신들에게 제물을 바칠 것을 거부하여 참수형을 선고받았다. 전설에 의하면, 그녀는 뜨거운 목욕탕에 가둔 채 찌서 죽이는 형벌을 받았으나, 그 안에서 하루가 지났음에도 죽지 않자 참수형을 받게 되었다. 지독한 고문에서 살아나 결국 목이 잘리게 되었으나 그것조차 쉽지 않았다. 형리가 3번이나 체칠리아의 목에 칼을 휘둘렀으나 역시 목이 잘려나가지 않았으며, 사흘 동안 목숨을 연명하다가 순교했다.


작품에서 체칠리아의 모습은 간혹 결혼식 장면이나 그녀가 뜨거운 목욕탕에서 물통이나



카를로 사라체니, <성녀 체칠리아의 죽음>, 1610년경,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

기름통에서 고문을 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체칠리아의 전형적인 모습은 악기의 수호성인답게 악기를 손에 들고 있는 장면이다. 이탈리아 바로크 화가 카를로 사라체니(Carlo Saraceni, 1580-1620)는 빛과 어둠의 강렬한 대비를 통해 성녀의 죽음의 순간을 극적으로 표현했다. 오른쪽 사형집행인은 긴 검을 들고 체칠리아의 목을 베기 위해 왼손을 들어 올려 그녀의 머리를 움켜쥐려 한다. 바닥에는 그녀가 음악의 수호성인임을 의미하는 악보를 비롯해 각종 악기가 놓여있다. 아무렇게나 널려져 있는 물건들과 천사와 체칠리아, 사형집행인의 큰 움직임은 그녀의 급박

한 죽음의 순간을 강조하고 있다. 순교를 상징하는 붉은색 옷과 동정녀를 상징하는 흰색 옷을 입은 그녀의 얼굴에서 약간의 두려움이 묻어난다. 하지만 천사를 바라보며 십자가 형태처럼 양팔을 벌린 그녀의 동작에서는 순교를 받아들이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천사의 왼손은 그녀의 머리 위에 놓여있고, 오른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있다. 천사는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한 성녀 체칠리아의 영혼을 받아들여 하늘로 올리려 한다.

“감사드리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세. 노래하며 그분께 환성 올리세.”(시편 95, 2) 

[가톨릭직장인] 후원금 안내

- 개인 후원: 1구좌 당 70,000원
- 교우회 후원: 1구좌 당 300,000원 (월보 뒷면에 광고 게재 가능)
-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501-784447 예금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을 원하시면 사무실로 연락해 주세요.)

※ 후원금 보내주실 때 계좌번호를 한 번 더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6월~12월)

서울교통공사, 김소영, 박기섭, 류완선, 김기숙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5,800,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가톨릭직장인 월보 발행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톨릭직장인] 모임교재, 편집팀 봉사자 모집

[가톨릭직장인] 월간지 발행을 함께 해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편집팀: 월간지 기획 및 편집, 교정
- 모임교재: 월보 속 "신앙의 삶" 나눔 원고 기획
- 문의: 02-727-2078

직장인들을 위한 미사 소개

바쁜 일상 안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풍성한 미사가 되기를 소망해봅니다.

◎ 명동 주변 직장인 대상

- 장소 :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 일시 : 매주 금요일 12시 15분

◎ 중림동 주변 직장인 대상

- 장소 : 중림동 약현 성당
- 일시 : 매월 첫째 목요일 12시 10분



우리농
새해
선물!

2023년 설, 우리농에서 준비하세요.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아
받으시는 분의 건강까지 생각하며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설선물 공급일
설선물 예약일

2023.01.06(금) ~ 2023.01.20(금)

2023.01.12(목) 오전 10시까지

우리농 한우, 유기농 산양산삼, 전복 등
※ 01.16(월) 순차 택배발송



우리농정보기 바로가기

유기농 산양산삼 7~9년근, 유기농 헛개녹용액, 홍삼액 등 건강식품 설 맞이 할인!
※ 명동니눔터 이용시 서울대교구 직원(우리농회원) 추가 5% 할인



communion [kuh-myoon-yuhn]

noun.(often initial capital letter)Also called Holy Communion.

1. the act of receiving the Eucharistic elements.
2. the elements of the Eucharist.
3. the celebration of the Eucharist.
4. the antiphon sung at a Eucharistic service.



www.catholicworkers.or.kr

Tel: 02-727-2078, 2080 Fax: 02-753-3792

Mobile: 010-4799-2078, KakaoTalk ID: gikjang

E-mail: gikjang@catholic.or.kr